COLLEGE

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權從遠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岡田大將에게 大命降下

―齋藤內閣의 延長?―

一

齋藤內閣의 總辭職後 後繼內閣에 對해서는 混沌하야 그 갈바를 모르고잇던바 四日午前中 元海軍大臣, 海軍大將岡田啓介氏에게 組閣大命이 降下하얏다. 齋藤, 宇垣, 平沼, 淸浦, 近衛, 山本等 모다 短點이 잇서서 그 누구에게 大命이 降下할지, 적이 疑問되엇거니와 이제 政黨과 稀히 因緣이 적은 岡田大將에게 組閣大命이 降下한것은 多少 意外의 일이다.

二

岡田大將에게 組閣大命이 降下한 經緯에 對해서는 아즉 詳報가 업스나 外國的으로 推測하야 大略을 알수잇다. 첫재 來一九三五, 六年의 危機를 압두고 가장 必要한것은 海軍의 輿論을 充實히 反映하는것이다. 그러라면 海軍部內에 直接 首相의 자리에 안즐사람을 넘이 가장 適當하다. 岡田大將은 昭和二年 四月 田中內閣때에 海軍大臣으로 잇섯고, 齋藤內閣때에도 海軍大臣으로 大角海相이 드러설때까지 잇섯다. 이 經驗잇는 岡田大將으로 하야금 首相을 시키는것은 一九三五, 六의 危機를 압두고 適宜한 處置라 생각한다.

둘재 岡田大將이 首相이된 理由는 政黨의 信用이 全然 恢復되지안은것이다. 지난 六三議會에서 鳩山文相이 綱紀問題로 辭職한것은 記憶에 새로운 일이어니와 今次도 政黨과 關係깁흔 黑川大藏次官 某某關係가 綱紀問題로 司直의 活動對象으로되엇다 그러므로 政黨에 關係가 업는 政黨外에서 後任을 奏薦한것이 아닐가.

그리고 海軍部內에서도 特히 岡田大將을 奏薦한것은 氏가 所謂倫敦條約派로 急激한 大海軍論者가 아니오 急進的인 파씨스트를 反對하고 人格도 穩歡平靜하야 敏腕이 잇는때문이 아닐가.

三

岡田大將의 人物과 背景이 이러한지라 그 組閣人物에 잇어서나 또그 政策에 잇어서나 想像할수잇다. 卽 政黨外의 人物인만큼 政黨에 基礎를 두지안을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海軍側으로서는 穩健한便이오 全然 政黨을 無視함에는 財閥의 批難이 잇겟스므로 齋藤內閣時와 가티 政, 民兩黨에서 各各 二人 乃至 三人의 政黨出身者를 入閣케 할것이오, 海軍中 穩健派라 陸軍部內에서는 벌서 批難의 聲이 잇다하니 陸海軍大臣 人選에 多少難色이 잇을지오, 將次 短命의 危機가 잇다면 이때문일것이다. 그리고 外相에 잇서서 廣田弘毅氏가 留任하리라는것은 一般의 一致한 觀測이다.

四

要컨대 岡田內閣은 一九三五, 六年의 危機를 압두고 成立하려하거니와, 他方極端에 흐르지안케하기爲하야 奏薦한 이니만치 軍部, 官僚, 政黨의 三者로 合처 擧國內閣을 組織하고 中間的 軌道를 밟아나갈것이 아닐가. 이 點으로보아 岡田內閣은 齋藤內閣의 延長이오 政策도 그의 延長이라고 볼만하다.

國防外交第一主義로 擧國强力內閣組織

結局現閣僚中에서相當히入閣?

齋藤內閣方針踏襲

【東京電話聯合】 岡田大將은 組閣方針으로 來一九三五, 六年國際的危機에 備키爲하야 國防及外交第一主義로 進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同時에 政黨도 尊重하고 政民兩黨을 비롯하야 널리 各方面으로부터 人材를 募하야 所謂擧國的强力內閣을 組織할 方針인바 政策은 大體로 齋藤內閣의 方針을 踏襲할 意向이다 前內閣이 綱紀問題로 倒壞되엇데 鑑하야 綱紀肅正을 重大政策의 하나로 揭할 意向이다 그리고 岡田大將은 閣員詮考에 際하야 세가지 意見을 갓고잇는바 今日齋藤首相을 會見하고 首相의 意見을 聽取한 後에 決定할터인데 結局閣僚中에서도 相當히 入閣할터이다

岡田大將 獨自見解로組閣

高橋藏相再入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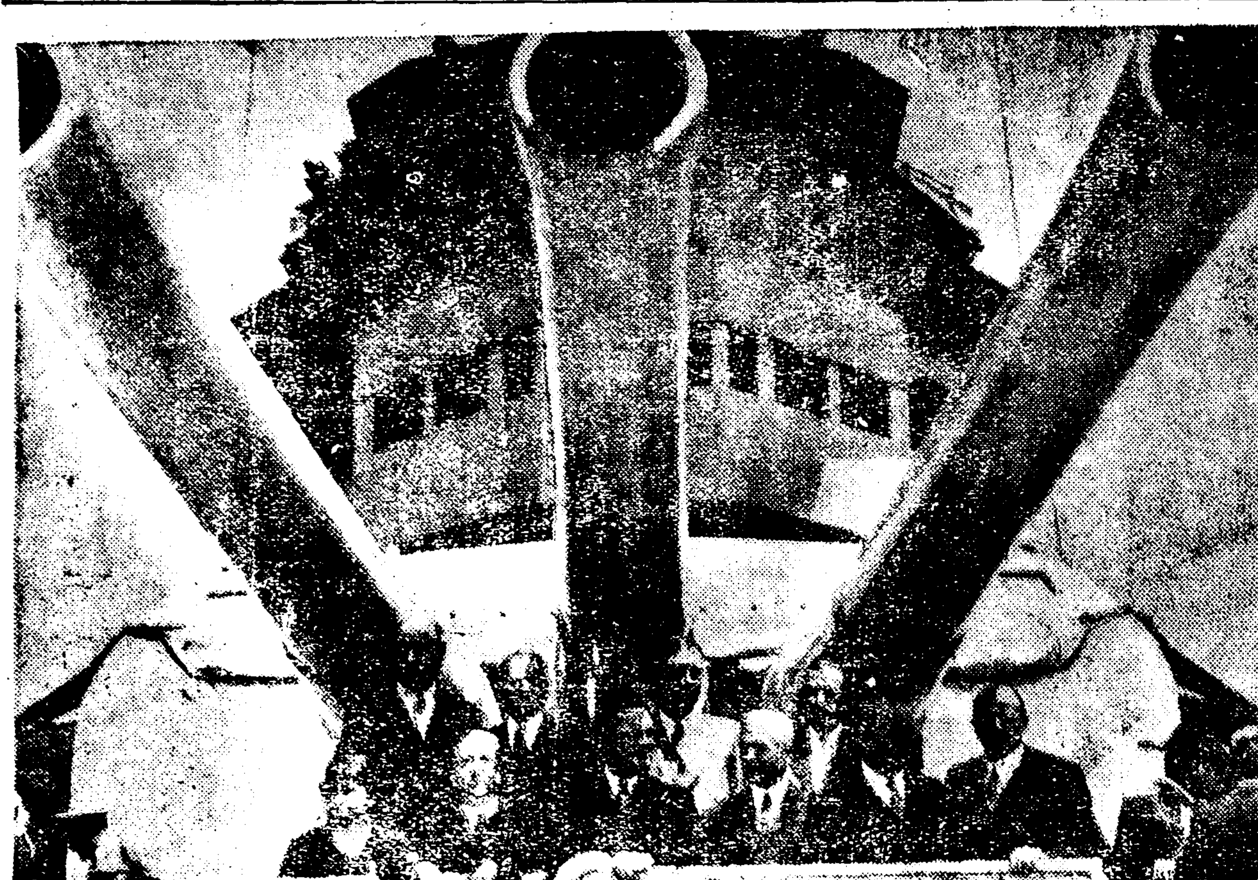
齋藤子、山本男에게對하야 岡田氏援助를懇請

【電通東京電話】 岡田啓介大將은 組閣方針에 關하야 萬事는 組閣本舞臺에 드러가서 決定할터이다 高橋藏相께는 만날는지 모르겟다 그 外의 누구를만나든지 마음나는대로할것이다 나게는이미腹案이잇다 고述하고 組閣에 當하야는어데까지든지 獨自의見解에基하야 堂堂히하여나갈意思가 잇슴을 暗示하야 意氣軒昂이다 또 岡田大將은 『高橋藏相을 만날는지모르겟다』고한것은 財界의 現狀에 鑑하야 高橋氏에 再次藏相으로出馬하기를懇請할것으로 解釋된다

【東京電話聯合】 齋藤首相은 四日午後一時十五分 山本內相을 私邸에 訪問하고 組閣大命이 岡田大將에게 降下하엿슴으로 同大將의 組閣에 對하야 援助하기를懇請하엿다

內閣書記官長 河田次官으로決定

【東京電話聯合】 岡田內閣의 中樞가될 內閣書記官長은 拓務次官河田烈氏로 決定되엿다



루米大統領及全閣僚의聯合艦隊巡閱 (紐育港에서 인디아나폴리스號旗艦에서)

警保局長과總監 任用令改正으로

事務官으로도可能

【電通東京電話】 警保局長, 警視總監의 辭表提出은 文官任用令의 改正에 依하야 兩者모다 事務官으로도 되엿슴으로 政務官과 別個로 取扱하게되야 一時留保되기로되엿다

後任海相은 野村大將?

【電通東京電話】 岡田大將의 總理大臣就任에伴하야 海軍大臣에 如何한 人物을選任할는지는 時節이時節인만큼 全海軍의 關心의的이되여잇는데 同大將은 海軍部內의 統制에 非常한 注意를 拂하고잇는 關係上 現聯合艦隊司令長官 末次信正大將을 選任할듯하다 그러나 末次大將이 固辭할境遇에는 大角海相을 復活하게될것이다 大角海相은 強硬히 固辭하리라고 觀測되는바 海軍部內의 空氣로 미루어 大角海相의 復活은 希望이 엷슴으로 其外에 小林躋造大將, 野村吉三郎大將이 希望에 오르고잇다

事件內容을聽取코 岡田大將組閣着手

藤沼總監河田次官을首腦部로하고 本部는首相官邸一部

【電信東京電話】 岡田大將은 四日午後二時十分 內閣組織의 大命을拜受하고 御前을退出하자곳官邸에 齋藤首相을 訪問하고 齋藤內閣總辭職의 原因인 大藏省事件及 某事件의內容에 對하야 『組閣의 參考上알고십다』고 質問하고 齋藤首相은 小山法相으로 報告바든 事件內容에 對하야 詳細히 說明하엿다 繼하야 岡田大將은 官邸의 一室을 組閣本部로하고 藤沼警視總監 河田拓務次官等을 首腦部로서 곳組閣에 着手하엿다

總辭職은 總理의思慮

山本內相談

【東京電話聯合】 山本內相은 三日總辭職決定閣議後 午前十一時五十五分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 御主催하신 濟世會午餐會에 臨하엿는바 總辭職決行에 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最後의 心境은 어떠하냐고 余는오래동안 繼續하여온 所謂靜觀을 마친내 버리게되엿다는 以外에는 아모것도 말할것이업다 齋藤內閣의 總辭職理由는 單純히 高橋藏相이 責任을負하고 辭職하기때문이라는 意味는 안이다 今回의 事件에 對하야 齋藤總理가 總理로서의 責任上 今回의 事件을 靜觀하면서 今日까지 나왓스나 內閣全體의 責任으로도 辭職하는것도 조타는 總理의 思慮에서 나온것이다 爾後에 對하야 못드리라도 余는 辭表를 提出하고 謹愼中입으로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岡田海軍大將 齋藤子에援助懇請

高橋、山本兩相도訪問

【東京電話聯合】 大命을拜受한 岡田大將은 御前을退下한後 牧野內府及鈴木侍從長과 會見하고 人事를述한後 二時二十分首相官邸에入하야 齋藤首相과會見하고 今後의援助를懇請하엿다

【電通東京電話】 岡田大將은 四日午後三時四十分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大命拜受의인사를述하고 約三十分會談한後辭去하고 同三時五十分 山本內相을訪問하고 同樣의인사를行하엿다

兩總裁訪問

兩黨支持를要求

【東京電話聯合】 組閣의 大命을 拜受한 岡田大將은 齋藤內閣과 同樣으로 擧國一致內閣을 組織하기로되여 鈴木, 若槻兩總裁를 訪問하고 政黨을 尊重하고 時局에 善處하기를바란다고 述하고 兩黨의 支持를 要求할터이다

特別事由업는限 山本內相不留任

【東京電話聯合】 岡田內閣의 內相에는 山本前內相의 留任說이 有力히 行하고잇스나 山本男은 老齡이고하야 特別한事由업는限 留任치안을意向인듯십다

日米兩國間에 意見懸隔無

齋藤大使米에放送

【桑港三日發聯合】 駐米大使齋藤博氏는 夫人及二令孃을 同伴하고 三日午後三時에 出帆한 秩父丸으로 歸國途上에 올낫는데 大使는 出發하기前에 全米國民에 對하야 다음과가튼 演說을 放送하엿다 國際平和는 依然何等念慮할 必要가 업다는것은 只今까지 累述한바와가티 日米兩國間에 意見相違가 잇다고는생각지안는다 日米兩國은 通商貿易上 重大한 關係를갓고잇고 何等利害가 衝突되지안는다 日蘇兩國開戰說은 臆測에 不過하는것이다

組閣大命과各派評

我黨에諒解求하면 斷然히拒絕

政友會幹部態度協議

【電通東京電話】 大命이 岡田啓介大將에 降下하자 政友會에서는 곳 總裁邸에 鳩山, 若宮, 中島, 山口, 岡田, 加藤(久)東의 幹部連이 參集하야 此에 對한 對策을 協議한 結果 岡田大將은 아마 政黨에는 無關心으로 組閣에 着手할듯하다 萬若 政黨에 連絡을 取하기 爲하야 我黨에 諒解를 求하드래도 我黨은 此를 拒絕할것이다 함에 大體意向이 決定되엿스나 그러나 大命降下直後의 일이다 좀더 形勢를 보지안으면 態度를 決定할수업다고 되엿다

雙手를擧하야 岡田內閣歡迎

海軍大部分의觀測

【電通東京電話】 海軍部內는 新內閣出現에 對하야 一九三五, 六年의 非常時 第二次補充計劃의 完成이라는 海軍未曾有의 重大時期를 압두고 恒常 擧國一致內閣의 出現을 要望하고잇든바 岡田大將에게 大命降下한것은 齋藤首相과 同樣으로 海軍出身이오 特히 海軍問題에는 十二分의 識見을 갓고잇슴으로 海軍의 大部分은 雙手를擧하야 歡迎하고잇다

角度가變한 元老의見解

岡部長景氏談

【東京電話聯合】 貴族院議員 岡部長景子는 左와如히말하엿다 岡田大將이 組閣의大命을拜受한것은 元老도 相當히 苦慮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往年海軍의 軍縮에 加藤大將을 奏薦한것과 對比하야 一九三五, 六年의 會議를 압두고 國內의 情勢와 總和를 參酌하야 適當하게 會議의 結果를 實行하는데잇서 文官出身首相으로는 勘當치못하리라는 見解에서 나온것이라고 推測되는데 大將은 國防問題에 對한 智識도 充分함으로 國防과 財政의 調和를 保하야 運行하리라고 생각한다 其他 內政方面에잇서서는 適當한 主義를 어더 今日까지의 施設된 人心을 安定하야 斷乎히 國策을 實行하기를 바란다 要컨대 岡田大將이 首相에 適當한지는 今後 政治如何에 依하지 안으면 알수업스나 角度가 變한 元老의 奏薦은 자미잇는것이다

軍縮會議압두고 軍部에責任지워

貴族院側의批評

【電通東京電話】 岡田大將에게 大命降下한데對하야 貴族院方面에서는 左와如한 批評을 下하고잇다 意外인感이 업지안은것도 안이나 이것이 一九三五, 六年의 華府條約과 倫敦條約의 改訂期를 압두고 軍部가 全責任을 負하고 其解決에 當하는것이 조타는 見地에서 海軍이 主體가되야 其解決에 當함에 잇서서는 軍部는 軍部만의 主張에 拘泥되지안고 國政一般의 軍備도 考慮하야 善處할것이라는 意味라는것으로 解釋할수잇스나 岡田大將이 果然適任인가안인가에 對하여는 多少疑問이 업는것도 안이다 卽 倫敦條約締結時의 態度에 對하야는 海軍部內에도 가장 非難이 잇스나 要컨대 岡田大將이 大命을 拜受하고 組閣人事를 決定할는지 如何에 依하지 안으면 確實한 批評은 나려갈수업다 그러나 岡田大將은 內政, 外交, 經濟方面에도 通曉한 人物임으로 相當한 業績을 擧할것이다

倫敦條約締結時엔 加藤軍令部長과大論爭

海相辭任後齋藤內閣의最高顧問

岡田新總理의人物

【電通東京電話】 岡田新總理大臣은 海軍部內의 重鎭으로 齋藤前首相과는 가장 緊密한 關係에잇다 海軍大將으로서 部內一部에는 反對하는者가잇스나 一般的으로는 部內에 信望이 잇고 일즉이 軍政家로서보다도 政治家로서의 手腕이 豊富하다 濱口內閣當時 倫敦海軍條約에 對하야 때의 軍令部長 加藤寬治大將이 猛然한 反對表明에 海相財部全權은 窮地에 陷하야 海軍方面에서도 議論沸騰한때에 齋藤首相(當時의 朝鮮總督)은 海軍部內의 反對氣勢를 鎭壓하기爲하야 岡田大將은 齋藤子와 加藤軍令部長을 바더 周旋하엿스나 激論을하엿다 그러나 岡田大將의 條約締結交涉은 마침내 軍令部를 抑壓하야 海軍首腦部를 壓迫하기에 成功하야 이 結果 海軍一部의 強硬派로부터 미움을바덧스나 政界方面의 評判으로는 政治的 手腕이 認定되야 『岡田은 軍人보다 政治家』라는 評判을 엇게되엿다 昨年一月五, 一五事件의 責任을 病을 理由로 大角海相을 後任에 推하고 內閣을 버서나 晴耕雨讀의 閑地인 淀橋의 小住宅에서 悠悠自適의 生活을 보내며 岡田가잇는때마다 齋藤內閣의 最高顧問으로 活躍하야 齋藤首相의 晩節을 完成하도록 여러가지로 盡力하엿다 이 關係로 齋藤首相도 岡田大將을 恒常생각하게되엿다 岡田大將의 가장 長所인 點은 人格이 圓滿, 思想이 穩健한 것이다 第一目標로 하는 內閣의 首班者로서는 最適任이며 特히 一九三五, 六年의 海軍條約改訂에 關하야는 年輩의 經驗에 鑑하야 相當한 準備를 가진듯하며 更히 一部의 純正한 方面에도 期待되어 大將의 人格 手腕에 依하야 期待된다 財界方面에도 幾多의 支持者가 잇슴으로 大將은 非常時 齋藤內閣의 後繼者로서는 最適의 首班者이다 이 意味에서 元老 重臣會議에서도 大將에 同意 奏薦한것으로 觀測된다

岐路에서는 政友會

長老、總務、幹部會열고協議

岡田內閣援助拒絕?

【東京電話聯合】 岡田大將은 大命을拜受하고 新內閣組織에着手케되엿슴으로 當然政友會를 訪問하고 新內閣에對한 援助를 求할것으로도 이의對策을講究하고잇다 그리고 鈴木總裁는 午後二時麴町私邸에 床次顧問을招致하고 그意向을 徵하야 今後의 對策을協議한바잇섯는대 政友會現在의情勢는 岡田內閣으로 援助를 求하는때에는 于先뒤에 回答할것을 答한後 長老會議 總務會及幹部會等을 열고 이에對策을 決定하게될 模樣인데 援助를拒絕하고 苦節十年의 決意를 示한다는 意見이 잇슬것으로본다

近衛公豫定變更

七月十八日桑港出帆

【紐育三日發聯合】 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은 故國의 政變에 鑑하야 旅行計劃을 變更하야 七月九日 紐育을 出發하야 市俄古經由로 桑港으로向하기로되엿다 七月十八日同港出帆 龍田丸에 乘船하고 八月一日歸朝할豫定이다

日蘭會商延期

【東京電話聯合】 日蘭會商第四次專門委員會는 四日午前十時開會豫定이엿스나 和蘭女王陛下의 ... 弔意를表하기爲하야 延期되엿다

緊急閣議를開催코

重要諸法令決定

非常時治安維持法을制定하고

黨、國、統一令一部修正

【伯林三日發聯合】 獨逸政府의 武力淸黨善後處置를爲하야 三日正午부터 열린緊急閣議에서 히틀러首相은 武力淸黨의 經過를 詳細히 報告한後 今回의 非常手段의 合法性을 強調하고 다음具體的對策의 審議에 入하야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다음重要諸法令을 決定하엿다

一、非常時治安維持法
一、黨、國、統一令一部修正
一、突擊隊總司令이 自動的으로 無任所大臣을 專任하는 條項의 削除
一、對外經濟報復令
一、農林業及狩獵을 普魯西首相의 管轄에 옮기는 政府令

右決定에 基하야 普魯西首相괴링氏는 새로 農林、狩獵相에 任命되엿다 所謂第二次革命陰謀에 關聯하야 그 進退를 가장 注目한 파―펜副總理의 處置에 對하야는 何等決定이 發表되지안엇나 閣議終了까지 자리에 안젓기를 懇望하엿슴에 不拘하고 파―펜副總理는 閣議再開後 얼마 안되여 蒼惶히 退席한것은 副總理의 立場을 辭하는것이 아닌가 興味잇게 보게되엿다

銃劍下의獨逸

太平洋岸埠頭人夫 又復警官隊와衝突

船荷運搬은無事終了

【電通桑港三日發】 太平洋岸埠頭人夫의 罷業은 何時에 解決될는지 見解가 서지 안는 狀態로 三日 産業組合에서는 埠頭倉庫로부터 船荷를 트럭으로 運搬하려할제 此를 阻止하려하는 罷業團數百名이 警官隊와 衝突하야 트럭六臺를 顚覆식히는等 大亂鬪를 演出하얏는데 警官隊는 드디어 催淚瓦斯를 使用하야 罷業團의 氣勢가 挫折된틈을타서 船荷運搬은 無事終了하엿다

英國建艦計劃討議는 國家目的을破壞

볼드윈樞相答辯

【倫敦三日發聯合】 三日英國下院에서 質問時間中 自由黨議員 만더一氏로부터 英政府는 暫定的條件下에 巡洋艦七隻을 建造할計劃이잇다고 傳하는데 事實인가? 하는 質問에 對하야 볼드윈樞相은 左와如히 答辯하엿다 海軍豫備會商의 唯一의 目的은 將來할 海軍軍縮會議를 成功에 引導하기爲한 基礎工作이다 英政府의 暫定從來에 對하야 압서 議論한다는것은 一部國家에 會議의 目的을 全然破壞하려는 偏見을 갓게할 念慮가 만히 잇다

獨政府閣議

【電通伯林三日發】 三十日淸黨以來最初의 獨逸政府의 定例閣議로 注目되여잇는 閣議는 三日午後에 開催하고 同四時에 散會하엿는대 私邸에 監禁되여잇는 파―펜副總理가 右閣議에 列席하엿는지는 아직 알수업다

三南農村瞥見記

中農의轉落과

耕地의安定性缺如

【三】 洪鍾仁

農業人口에對한自作農의減少와 自作農과自作兼小作農이減少하고 地主와小作農及農業勞働者의數가 逐年增加하고잇다는것은 여기에統計를擧示치안어도 잘알수잇는것이다 이것은自作農階級自身의營農法의不良이나 또는 그들의怠惰等에 原因하는것이 안이고 近代的經濟發達이 農業經營에잇서서 地主와小作農의兩者를分離하는方向으로 發展하는때문이다 이結果는必然的으로 土地兼併의激化를招來하며 結局은農土의生産物이보다더만히 地主階級에게로돌아가게되는것이니 限定잇는土地에限定잇는勞働으로는生産物이地主階級에게로偏重함에 딸아農民(小作階級)은困窮에빠지지안을수업는것이다 이結果를다시말하면農耕者의窮乏은 農土에對한安定을 일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農村社會의 階級分化와農土分配의 不均衡의 問題는 딸아올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農民의農土에對한安定性의 缺如를말하엿스나 이것을說明함에는 農土그것에對한 安定性과, 耕作을爲한勞力의 提供을包含한小作料의分配의 두가지方面으로생각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地主에게는 土地所有權의 任意行使와 그保持에依한 利潤이保護되여야할 前提條件밋헤서 農民으로서는, 農土耕作을爲한 恒久的權利保護과, 農土에 提供한勞働에 對하야 最少限度로 生活維持程度의 報酬를 要求하지안을수업다는곳에 農民은, 耕作者로서의 安定性을 엇기어렵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朝鮮農民의 農土에 對한 安定性이 動搖되는 重大한 限界線을 土地制度의 近代的組織改編에 發見할수잇다 이것은 朝鮮에서의 近代式經濟制度成立에 重大한要素가되는 土地調査事業에 依한 所有權制度의 確立이다 이러한 所有權의 確立이라는 것은 法制의 實施도 어느限度의 發展을보는 社會에서는, 그 社會의 生産力의 當然한 要求에 依하야 遂行되게되는것이나 朝鮮은 그보다 한거름압서서 朝鮮의 社會的生産力以外의 要求로서 되엿다는곳에 그特異性이잇거니와 이 土地制度에 依한 所有權의 確立은 單純히 土地所有權者의 義務와 權利를 法律化하엿다는 것보다도 所有權者(地主)와 許多한 現實的農民과의 關係에 重大한 變革을 주엇다는 點에 크게 注目할바가잇는것이다

卽 小地主와 自作農의 沒落에 依한 小作階級의 增大와 土地分配의 不均衡을 激甚케한 큰要因이 여기잇는 것이다

생각컨대 土地制度의 改革―― 所有權確立以前의 土地는 地主對小作人關係로보아 完全한 地主所有라고 볼수업는 것으로서 實際에잇서서는 實際耕作者인 小作農의 占有에 屬하엿든 것이다 그리하야 小作人은 收穫物의 一定한 部分을 地主에게 바치고 또地主는 그것을 徵收함으로써 兩關係는 平和한가운데 身分的從屬關係까지 미치워잇섯든것이다 여기에 地主는 高率의 小作料를 바티기는 惡例는업지안엇스나 小作農民으로서는 農土에 對한 耕作權만은 保持되여 生活의 根據가 되여잇섯다 그것이 土地制度의 改革을 보면 巨大한 面積의 土地가 一片의 文書로써 地主들의 손으로 돌아가게되어 새로운 權利者들은 從來의 現實的土地占有者이든 農民들의 權利를 남기지안엇다 이에 農民은 오랜傳統에依하야 싸엇든 農土에對한 權利라는 觀念은 一顧의價値도 업시되엿나, 다만『小作農』이라는名稱밋헤 土地에서 새로운 解放을보게되고, 나아가서는 一個의 農業勞働者로 出發할길을 發見하게된것뿐이다 이가티 農民의 所有權의 確立을바든 地主와의 關係에잇서서 다만 舊來의 高率의 小作料를 바치는 義務만을 忠實히 相續하는밧게 다른것이업게되엿다

이와가티 農民의 安定性의 缺如한 土地에 對한 것과, 小作條件의 두가지 方面으로부터 오는 原因에서 더욱 甚하게된다 (此項未完)

六月外地貿易

【電通東京電話】 大藏省發表 六月中外地貿易概況은 左와如하다 (單位千圓)

本月入超	一七、七〇三
輸出	一八三、八〇四
輸入	二〇一、五〇七
合計	三八五、三一一

六月中의外地(樺太를包含함)對外貿易은 右와如하거니와 前年同期에比하야 輸出은二割三分 輸入은四割七分一厘가增加하고 輸出入合計에잇서서는 二割八分六厘의增加를示하엿다 그리고 一月以降入超額은 一億五千四百九十二萬三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千百五十四萬五千圓의入超增加이다 今期輸出入主要品目中增減의顯著한者는 輸出에잇서서 增加된것은 綿織物, 人絹織物, 機械類, 鐵製品이요 減少된것은 生絲, 綿絲, 諸食料品, 小麥等이다

六月中對外貿易

六月中朝鮮對外國貿易額 (單位千圓)

輸出	四、七七八
輸入	七、二四九
合計	一二、〇二七
入超	二、四七一

으로 前年에比하야 輸出五十萬圓 輸入九十一萬七千圓으로 增加, 一月以降累計(上半期)

輸出	二五、八四八
輸入	四二、六九七
入超	一六、八四九

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三百十八萬六千圓의 入超增加이다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訂正 [illegible]

그들이본半世紀朝鮮

卽時退去안으면 죽인다는脅迫狀 (三)

於수엔가면안된다는載寧住民

在留三十八年 韓偉廉氏

씨렴위한

황해도 재령(載寧邑)에서는 예수교인 이나 아니나간에한위렴(韓偉廉)목사 혹은 더주려서 『하목사님』하고 마치 세세대대로가치 사려오는 이웃사람인것처럼 친근하게부르지만는 그본일홈을 따지면 월렴·부류스터·헌트』씨 ―그도 역시일천팔백구십칠년조(祖)의 한사람 으로 조선 오기전에 이조선을엇더한 나라라고 꿈꾸엇는가하는 질문에 씨는

『그러케 륵별히 조선을사랑한 까닭아니요 그저 가라하니왓소 예수밋는사람 한우님 가라하면 어데라도가오』 하고 위선사해동포주의적 사령을 보이는것이역시 목사님레도이다

『그동안 복것만나지요가난한사람 부자되는것보앗고 부스런한사람 유명해지는것 보앗고 만히 보앗지요 일천구백이년 삼변 그때는 대단부서운일잇섯소 그때는아마당신(기자를 가르친)나지안엇겟소』

하고 빙그레웃는 긴얼굴은그의 반세기에가가온 조선재류에 자못자랑을 늣기나보다 그는게속한다

『그때 나는봉수으로도라가라고하는 편지만히바덧소 그러케안으면 죽인다는 위협편지 드렷소 아마 천도교하는사람 만하그런편지안밋엇섯소 가라는말 대단섭섭하오 그래서 목사일그만두고갈 생각만히이 낫소 그러나지금은 제경험제을 가지말나 가지말라하오』

그밧게도 죽을번한 일만히잇섯소 은혜겨울에 대동강어름 유건너는데 우리가모다 건너서도라서보니까 그만어름장 문허젓소 하마트면물고기기 빼와번햇소 하하하하 요지유은 한강(漢江)외언도교를 이승과저승의 연락교를 삼는강물루신자송자가만컷만 『하목사님』은 버륵그릇 강물에 목숨을빼앗기는일도 업거지안나보다

『내가 처음 왓슬때에는 원님(당시의군수)엇는데 굿바게장판업섯소 그리치마―는 지금 장판의 장판한것같아 보오 세상변하는일만소』

장판의 보편화(普遍化)에도 잠은 이땅의 중인은 개화(開化)의 발자취를 보나보다 끄트로 특별히 조선서어든실심아 일은 업는냐고무럿드니 갑작이 씻든그의보통이상으로 진업물의근용을 긴장시키면서 하고대답한다

『만히 잇지요』

『첫재까닭업시 리혼하는것섭섭하오 둘재 술취하는것대단섭섭하오』 하고는 『그만합시다』하고 우서버린다

新敎傳來五十年紀念

清楚한雅容

이슬머금은 옥잠화

水組의不良化防止窮餘策

理事選任을官選制로

民選理事制廢止結果는?

注目되는當局의擧措

도지개량사업의 중지와 동시에가장 두통거리가 되어잇는오십여불량수리조합의 정리에 대한근본적방책에 대하야는 석간에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총독부에서는다시 불량수조의 정리와 동시에 수리조합의 불량화를방지하는 정책으로금후는 수리조합리사(理事)는 관선으로 하기로되엿다한다

현행수리조합리사임면제도는 조합 평의회(評議會)의 추천결의로 도지사의인가를 어더가지고 조합장이 임면하는것인데 이때문에 인선이불충분한 일이잇서 불량수조화하는 일이 만타는것으로 즉불량한 조합원과리사가 결탁하야 책동하는관계로 조합관리가 철저치못하고 또몽리구역을 함부로 확장하려는계획을하거나 기타 부정사건이빈발하야 조합재정이 혼란하게되는일이 만흠으로 관선으로 [illegible]이라한다

그러나 관선으로한다고 반다시조합의불량화를방지하며부정사건을예방할수잇는것이아니라 요컨대 감독을철저히 하는것이 필요한데 현재에도 도지사와총독부에서 이중으로 감독하고잇슴에도불구하고조합을불량하게 맨든것은 원인이 총독부로지개량계획자체가 조잡한 경향이엇섯든것이니 오직리사를 관선으로하여가지고서 불량수조의 속출을 방지한다는것은 적당한방력이아니라고식자간에론의되고잇다

奉天에大火

【奉天】 칠월일일오후네시경 당지 서탑대가삼정목(西塔大街三丁目) 권촌유상랑(田村山三郞)이가 경영하는 서탑창고(西塔倉庫)안에서 발화되여창고안에 [illegible] 치써허둔 긔계유(機械油)석유(石油)와 그엽해싸흔면포(綿布)등에 인화하야 불길은 점점 놉하저서 일만츠소방대의 진화도 효과업시 동창고는전소되여 다오르는긔름의 검은연긔는긴시가를뒤덥나시피되엿고무근길까에는구경군이인산인해를일우워 일시는 교통까지단절되엿섯는데 동열한시경에야 겨우 진화석켯나한다 원인은 석유동을수리하던중석유에인화한것이라는데손해는약십만원에달한다

男女七歲不同席!

中國의儒敎倫理復歸運動

男女海水混浴禁止

【廣東聯合郭信】 공자제(孔子祭)를 부활식혀다시금유교(儒敎)주의로 도라가광동(廣東)에서는 또다시 해군제일함대사령장 지영(海軍第一艦隊司令張之英)씨의 제창으로 남자와녀자와의 혼욕(混浴)과 공동해수욕을 금지할라는 운동이이러낫다 이운동은 풋속을 미화하야도덕률(道德率)의향상을 목적으로 하는것인데 현재광동에는 열몃개의수영구락부잇서 각기 『풀』을설치하고남녀가공용하고잇다 공자의말씀그대로 남녀일곱살에자리를가리 안하든동양도덕종가의 선민(選民)들로서 터구나 혈긔방정한 청춘남녀들이 알몸뗑이로 벌거벗고대하는것은 백가지해는잇슬지언정 한가지리가업을것은 감출수업는일이라하야 금지파(禁止派)에속하는사람들은 서남정무위원회(西南政務委員會)에대하야 금지할결의안을제출한것이라고한다

旅客機로空中爆擊 七百共軍遂退却

混亂中에凄慘한羅子溝市中

主力部隊繼續討伐

【電通間島三日發】 일혜동안을두고 반만군에게 점령되엇든라자구(羅子溝)는 공중폭격과 만주국군의 공격으로 다시구해내엿는데시내의 주요가옥은 전부를타버리고 시민은식료품과 가구등속을 략탈당하얏다 반만군칠백명은 퇴각하야 석두하자(石頭河子)방면에집결한까닭에손(孫)피(皮)두당장(黨長)의주력부대는 어원부터 대토벌을개시하얏다

【電通間島三日發】 라자구(羅子溝) 부근의석두하자(石頭河子) 주둔 만주국군 백명은이십사이부터약사백명의반란군에게 포위되야응전하든중 란약이결핍하야삼십일에 최후의일전을하고긴원이할성을 지르며 반란군을돌격하하야 반군이십칠명을 넘어치고위지를탈출 하얏는데 전사세명중상네명을내엇다

【電通間島三日發】 연길경비사령부(延吉警備司令部)의대장 중위(大丈中尉)와부부단장(夫)티령(團長)은단원(丹原) 비행사와 패키(旅客機)를라고이십팔일과 삼십일에 라자구(羅子溝)와 석두하자(石頭河子)의반란군에대하야 공중폭격을하고 응원군에게 탄약보충과 그업호(掩護)에 성공하얏는데 려객긔의 전투참가는이번이처음이다

잠깨우다고暴行

부외독도면독도리(義島面義島里)리재만(李載萬)(三)은 삼일오후 팔시경술을 잔뜩먹고부내 주교정(舟橋町)이백사십칠번지 오영근(吳永根)의집에들어가서 주인은업고 그의안해박성중(朴成中)(三五)과 동거인 박연범(朴然範)의안해 신금년(愼今年)(三)의 두녀자만잇는것을 긔회로긴긔 오성근의 첨가등(加藤) 요시끄가그가고용되여잇는식당에서매일밤새벽두시경에도려와 서문열어달라고 소리치는소리에엽집에서잠잘수 업다고트녀자를함부로때리다가 본정서원에게인치되야방금 그서에서 엄중취조를밧는중이다

元山拳銃事件 仲田巡査辭任

【元山】 지난륙월삼십오전세시경 원산중정공원 근처에서순찰중의중전(仲田)순사를저격하고 도주하얏든 우복동은원산서에서 취조를밧다가 지난이십팔일 일건서류와함께 원산검사국에송치하야 한동안세상을 놀나게하든 이사건도 일반의기억에서 사라지라하엿는데 사건당시의목격자인중정공원두부집주인 중촌십장(中村十藏)이경찰범처벌령위반으로 원산서에 유치됨으로부터 다시새로운 흥미를일반에게주고잇난 이때에긴긔중진순사가 범인을 체포치못하고 노첫다함은 경찰관으로서 본분을이저버림이라하야 사표를제출중이더니 요지음 아름수리케되여 긴긔중진은 사직할에일으럿다고한다

流浪途中의 二八美人自殺

【白川】 황해도백천군은천면 런동리연성려관(延城旅館)에서는 이팔미인이음독자살한 사건이발생되엿다 그는 인천부금곡리하진면의장녀하현필(河賢必)(一八)로서 지난삼월에 무단히집을떠나 황해도곡산읍에와서 잇다가 지난륙월삼십일에 백천에 도착하야 동려관에 투숙하엿든바 부모의부족한리해와 쓸쓸한세상을비관하고칠월일일오후삼시경에 승홍수란독약을 먹고 고민하는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즉시팡동의원정공의(丁公醫)의 응급수당을바덧으나드듸어목딸시경에 세상을떠나고 말엇다한다

··|白熱된 接戰과 熱狂된 觀衆|··([illegible]에서)

門鐵對高麗野球戰

强豪門鐵과對陣 高麗軍憤敗

十二A對六으로

遠來의强豪門鐵軍野球團의 來城을 마지하야 서울팬들은 [illegible]를보고는 어에오래인沈默을깨드리고當然挑戰한 高麗軍의登場은 實로滿都野球팬의胸中에어지러운흥분을이르켯다 어리하야 四日午後四時三十四分부터 京城球場에열린 이兩軍의大接戰은 今年씨―즌의白眉임을보지아니하야 定刻前부터몰려드는 『펜』으로써 兩翼內野『스탠드』는 뒤덥혓다

當然히 다시 喚起한高麗軍이나 各地에흐터진『멤버―』를 不時로召集하니 充分한練習조차못하야『팀웍』의缺陷이敵의 큰힘현드킨」이잇다 그러나 高麗軍은멀리不懷에서달려온 趙兆龍(平鐵捕手)白基珠(平實)兩君을 비롯하야(延專의現役員은 野球統制關係로 不參) 京城實業리―그戰에서活躍하든二三選手를加하야 意氣더욱旺盛하엿스며이날滿都팬의囑望을누억게에걸머지고 『풀레드이』에선 選手는半島가가진 怪腕投手李榮敏君이다

定刻이되여高麗先攻으로開始되니『펜』들의期待에어그러짐이업시三番打者李榮敏君의보기조흔 安打로서 高麗軍機先을制하고 第一回에一擧二點을 先得하는 壯快한 幕이열리엇다 (當日審判百瀨、岩出、山谷)

【門鐵】	【高麗】
7 管	6 白基珠
6 石丸	9 金貞植
8 杉田歷	1 李榮敏
5 新富	3 咸龍華
3 鍋守	8 盧[illegible]
2 井野川	4 張慶煥
9 中島	5 [illegible]
1 德光	2 趙兆龍
4 針持	7 崔仲乙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計
高麗	2	1	0	1	2	0	0	0	0	6
門鐵	2	0	0	0	1	1	1	7	A	12A

아마拳鬪聯盟 理事會

重要事項決議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에서는 七月一日午後五時부터 同聯盟事務所에서 理事會를열고다음과가튼事項을決議하엿다한다

一、東京留學生 金剛拳鬪俱樂部招聘觀戰 極東選手歡迎戰을開催의件 (七月二十日於京城運動場)

二、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의主催는 本聯盟에서統轄할事項임으로 他團體의主催는此를認定치아니함 本聯盟加盟團體又는其團體所屬選手는 本聯盟의認可가無히 本聯盟이認定치아니하는 『아마추어』選手權大會에 出場함을不得함

黃乙秀氏今朝歸京

黃乙秀氏 (極東올림픽拳鬪選手監督) 는今五日朝七時二十分京城驛着歸京豫定

滿浦鎭線國際鐵橋

今秋에起工豫定

人道車道의設備도充分케

軍事產業上重大視

군사상 또는산업상에매우 중대한의미를가진만포진(滿浦鎭)선 철도부설공사는 어느선 보나도 먼저암성할 계획으로 방금공사를 급히하고잇는데 얼마처부터 일만량국간에 문제 되어잇든 압록강상류만포진(滿浦鎭)과대안피의사이에 대철교를 가설할 계획은 최근에 구체화되야약이백만원의예산을가지고 금년가을부터 착공할예정으로 벌서측량과 설계를시작하엿다한다 이철교는 장례만포진선이 만주해룡(海龍)까지에 연장되야 멀리 길림(吉林) 신경(新京) 봉천(奉天)도련락할 중요선임으로 이철교에는 현재의 안동현(安東縣)과신의주(新義州)간의 압록강 철교와가티 인도교와 차도를 가치설비하는 대철교로서 소화십이년에 만포선 철도진선 개통과가티 준공 된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조선으로부터 만주를관통하는 경의안봉선(京義安奉線) 만포진 해룡선도문선(圖們線)의세선이구비하게 되야 대륙정책의 수행상가장중대한 삼대간선이될것으로 군사산업교통상 각방면에 큰변혁을 이르킬것이니만치매우주목된다

東海岸에豊漁

江口港은空前好況

【盈德】 경북 영덕군 강구항(盈德郡江口港)은제이기축항을 완성한후 현재호안공사(護岸工事)중에잇는동해안에유수한어항으로 변주각종어산물이 만흔중에근래에는 고등어의 대풍획으로매일 사십여척 어선어천여미내지 이천여미식 하륙하는중으로 매미에사전 내지오전식에라도매매가 쉬어서 척구항은이로서긴에못보든 호경기를 보여고잇다

多年間宿題

朝窒築港開放

新興鐵道開通함께

【興南】 흥남조질회사 (朝窒會社)전용축항은 준공하기전부터 일반에 개방할것인가? 안할것인가?하야 이래칠팔년을 두고 현안으로주민측에서는 개방을 요구하엿스나 회사측에서는 시긔를보아 하겟다는 방패로 오날까지 왓는데 이제동회사경영인 신흥철도가서 함흥으로흥남까지 완성되자 만치못한손과 잡진강수전용재료만운반하야는 도저이 채산이 되지안음으로이축항을 개방하야 서호진에륙양(陸揚)하던물회를 이측항에 상륙식혀 함흥, 장진각지에 신철로운반케하는동시에 흥남상공계를 위하야 물원에개방하리라는데개방되는날에이지방일대상공계에큰영향이잇슬것이라한다

密酒違反者 八十三件發覺

【大邱】 대구세무서 (大邱稅務署)에서는 주세취체규측개정을 긔회도하야 위월중관내맥수긔(麥收期)의 밀조주의 취체를 단행한결과 각군에서 탁주(濁酒)칠십건 곡자십삼건합계팔십삼건의 위반자를 발견하얏는데 각군별로는 달성군이 사십건경산군이삼십건 청도군이십사건 고령군이십삼건이라하며 당국에서 모다업벌주의로 처분하얏다한다

憤김에愛女投江

男便과싸홈끄테自殺코저

轉心되여愛女만溺死

【沃川】 지난삼십일오전한시경에 옥천군청산면백운리 김만석의 안해안남성(安南星)(二四)는부부간에 가정풍파로싸홈을 하다가안남성은 분결에 자기가나흔 녀아순내(順內)(三)를 업고김혼 밤중에 집을나와 자살을할목적으로 청산읍건넝 (靑山邑前坪)에 압흘흘러가는 금강(錦江)상류보(洑)에가서 업엇든녀아를 물에던지고 자긔도갓치 물에빠질라다가 갑작이 정신이도라서며 가살하기를 중지하고다시물에던진 녀아를 구할라하엿스나 요지음장마로 물이잔뜩 불엇슴으로 건지지못하엿는데 아이의 시체는 즉시청산주재소원과 촌민들이출동하야 하류에서 건저내엿다고한다 대전검사국에서는 미창(米倉)검사가 출장하야 검시를하엿다고한다

洪北普校開校 【洪城】

충남홍성군홍북면 홍북공립보통학교는 인가되여 회생모집과 기타설비에 분망중이든바 지난삼십일에 회생칠십여명에 입이학년의 두급으로나누어 교수하기로하고 관민유지의 다수참석으로개교식을 거행 하엿다는바 교사는 아직신축될때까지 면사무소의 창고를 빌어림시교사로 쓰게하엿다한다

淋病 ケンゴール (プラオンヂン) (보라오찡)

治療와性病豫防에絶對權威

本劑는、前東京市養育院病院長으로十數年在任하시든佐藤榮先生이多年實驗과學理에基하야가장合理的인周所製劑로完成發表한것인대、多數專門家의臨床實驗에依하면、治淋劑로서의最高要點인深達、殺菌、消炎三作用이敏速的確하고、治療期間을極端으로短縮할수잇는點은、絶對로他藥의追隨를不許하는바이다。그리고殺菌力이매우强烈하야〇、五乃至〇、八瓦(即尿道粘膜에塗布하는程度)의極少量으로、使用一回마다그效果가顯著히나타나고洗滌挿入藥等가튼藥液과함께淋菌을後部에送入할念慮업고따라서攝護腺炎、副睾丸炎等을併發하는것가튼念慮는絶對로업고도리혀이런염녀를豫防하게되는것은、더욱本劑의賞讚을博得하는바이다。또다시本劑는性病豫防으로使用하야도、前記와가티殺菌强烈하야半後數時間後의使用이라도그作用은絶對로發能을期待할수잇는것이다

于先文獻으로本劑의知識과實驗報告及成績等을아시라希望者는齊寶元으로葉書로申込次第送呈

新發賣 (試藥品) 一圓九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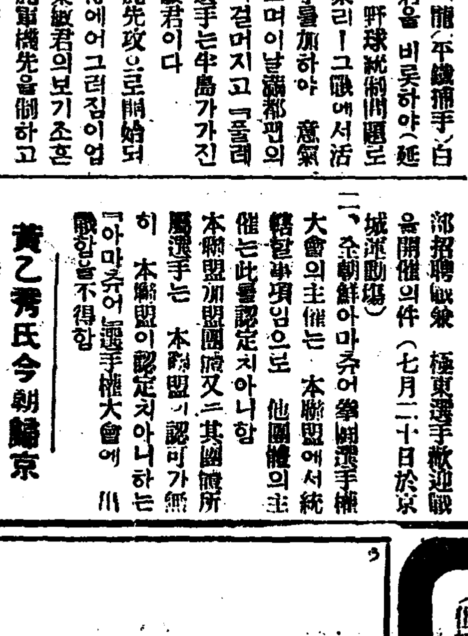
二〇瓦入(約十四日量)三円八十錢 五〇瓦入(約三十五日量)七円 八〇瓦入(約五十六日量)十円

(淋布用綻劑其四附屬品付、但婦人用에카프셀을添付함)

東京市芝區三田通新町 日東製藥合名會社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

SK-10



四日特別封切 淸熱戰一の名篇!!滿都封切四週間續映を成せる!!待望の東西二大名映畵同時大公開!!

MGM本年度超弩級日本版 エスキモー 全拾二卷 原作 ピーター・フロイヘン 監督 W・S・ヴァン・ダイク 脚色 ジョン・リイ・メーヒン 『エスキモー人』『マアラ』『ドルタク』『エヴァ』外百數十名のエスキモー人出演

大阪毎日・東京日日提供 トーキー・ニュス 東鄕元帥國葬實況 全壹卷

新興キネマ陽春超弩級作 興高田プロ大合同特作 原作 中野實 脚色 竹井諒 撮影 三木茂 監督 阿部豊 藏の街 全拾卷 主演 高田稔・森靜子 月田一郎、桂珠子、松本泰輔、見明凡太郎特別出演

近日封切 若象將、妖麗、猿飛佐助、霧雷青年、春の目醒め 天狗の安

永樂町一 電本二〇四 中央館

七月三日낫부터三日間 二大特撰名畵謝恩週間 毎日二回 낫一時 밤八時十五分 始映 大衆料金 階上十錢 階下十五錢 均一

松竹키네마社作品 實寫 松竹뉴―스 全卷

FBO社超特作品 大喜活劇 탁―시十三號 全八卷 名優레스타종十링氏力演 이야말노우숨다엇지웃지안코서 보실수잇슬가복보시라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畵 嬉しい頃 全十卷 (깁버한나히) 江川宇禮雄、川崎弘子主演 기야집팍보서야할名畵입니다 靑春男女의달콤한사랑이야엇人生의樂園이긴이고무엇일가요 보시리이感激篇을?

鐘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七月四日封切、五日間絶對日延なし 獨、米、代表的傑作名畵觀映大會 1週間

1、R・K・O特作日本版 監督 ノーマン・タアローグ 主演 ロバート・ウールヂイ バート・フキラ 頓珍漢大勝利 七卷

2、R・K・O超特作日本版 監督 ハーバート・ブレノン 主演 ドロレス・デル・リオ リオノ誘惑 八卷 『南海の劫火』一本にて一躍世界の寵兒と成りしデル・リオの第貳回作

3、獨逸ウフア超弩級日本版 監督 ロベルト・ジオドマク 主演 エミール・ヤニングス アンナ・ステン 激情の嵐 九卷

次週大公開 今やガルボ・デイトリッヒを凌ぐ新しきスクリンの驚異アンナ・ステンの魅惑!! ボートの八人娘、ドノバン・キッド

明治町一 電本 二三 浪花館

本社直屬劇團 新舞臺南鮮巡廻 ◇群山夏期特別訪問公演◇ 群山劇場에서

裡里訪問公演 七月二日까지로끗마치고 七月三日부터 毎夜八時半開演 藝題毎日交換

特選新作劇本上演 新舞臺의成熟한演技! 그結晶된同人들의熱演을보시라

新築中 團成社 (電光九五九)

金組理事의暴行 七歲兒를亂打重傷

며러진복숭아를주어간다고 警戒가저내처亂暴

【鴻山】 어린아이들이복숭아를 주은다고 현직금융조합 리사가쫓처가서 긴청대로 닥치는대로 무수란타하야 일주일이상의 치료를바들상처를내엿슴뿐만아니라 동가지싸게한사형(私刑)사건이발생하엿다 가해자는 부여군홍산금융조합리사삼평화삼랑(森平和三郞)이오 피해자는 동면북촌리(同面北村里) 리선동(李先童)의아들상우(上雨)(七)로서 지난이일오전칠시경에 피해자인상우는 동모들과가리권과가해자인삼평리사(森平理事)의 사택울안에잇는 복숭아나무미테떨어진 복숭아를 주으려갓다가 맛침권과삼평리사에게 들킨바되여 다른아이들은 즉시달아나버리고 권과피해자인 상우만은달아나다가 따장못에 의복이걸니여 달아나지 못함을보고 긴청대로 닥치는대로 무수란타하얏슴으로 그아이는 꼼념과아픔을참지못하야 생똥을 싸기까지하엿스며 모진매가 충기러에 다어서 유혈이랑자 하엿다한다 그리하야 청대로때리는 소리와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소리에 그근처에서 맛층집을 짓든목수들과 정안에서바느질하고 잇든 부인들이 달려나옴으로 권과 해자인 삼평리사는 그만때를멈추고 집으로 들어갓다한다 이소문을들은 동리사람들은 그와가튼란폭한행동에 대하야 비난이 놉다는바 과자는권기 가해자삼평리사를왕방한즉 씨는아래와가티말하엿다

加害者 森平理事談

이동리아이들은심히낫브외다 더구나 그아이는 평소에대단히낫븐아이로보앗소 이번도 그아이는 다른아이와 가티이 따장을넘어들어왓슴으로곳쫏차가서 청대로때리어서 공연을 들게하엿스니 자긔말은 경계타고하나 잘못하외다 그럼즉 정로 그대로는잇지안캣소 법외수속을밟어 경찰에 고소하겟소 운운

被害者父 李先童談

처나가서 도망을가므로 끗가지 따라가서 주엇소 그래나 그아이들때문에 주엇든것을 때리기위하야정신해으로 개준케하라고 때린것이오 운운

目擊者 某氏談

나는집에 잇노라니 어데서따따하는소리가나면서 웬아이의 우는소리가 남으로 뛰어나가 본즉 웬아이가 따장우에서소리를 질으고잇는데 웬사람이 긴청대를들고무수란타함으로 따장안을 들여다본즉 금융조합리사엿소운운

泥醉僧의行悖 村人을毆打致死

「곡차」가양에지나처서

【楊川】 지난이십구일오후구시경에 대천군대천면 울봉리(大川郡大川面蔚鳳里)에서는 술먹은중이 애매히 사람을때려 일시혼도하엿다가 드듸어 죽게한 사실이잇는바 자세한내용을 알아본바에 의하면 권과중 신태은(申泰殷)이라는자가 술이취하여 자긔잇는절로가다가 길가에잇는 담배가가 과부의집에가서 그집아들 십오세되는 소년과 언쟁을하면서 주정을함으로 동리에사는최모가 이를보고 그러지말라고말을하얏는바취한중은최모에게거 시달려들므로최모는술적피하얏도니어 大田(?)김경운(金慶雲)(七)이가채홍하든 소리를듯고 구경을을붕권과중이최모로알고겟혀잇는 몽둥이로 머리를때려죽여에 혼도케한것이 의업에드되여 사망한것인바 범인은즉시 대천경찰서에 검거되여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各地移秧成績

忠南道內는 九割二分完了 七月一日現在

【大田】 충남지방의이앙상황은지난일일 현재에구할 이분을맛치엇더인데홍성서천(洪城舒川)은권부이앙이되고 대전천안(大田天安)이제일느젓섯든바 금번의강우가 충분하야거의 권부이앙을 마치게되엿는데 권변에 비하야 성적이랑호하다한다

沃川에六割

【沃川】 옥천지방에는 그간가뭄이 계속하야 수답(水畓)에 이종을못하여 농가에서는 불안중이든바 이상일이래로 사십오미리의 비가와서방금이종중인바금번비에딸팔이상이양하게되엿다한다

始興郡下에는 十年來의好績

【始興】 텔러되는근일의장마는도리혀농작에는유리케되여시흥군의 이앙은순조롭게 진행되여이미지난칠일현재로구할팔부까지 완료되엿다는데 십년래의 초유성적이라하야 일반농가는물론 군원업계원등은 크게깁버한다는데 밧작에는 얼마간손해를면치못하리라한다

霖雨繼續으로 農、漁業者打擊

農、漁村民憂慮多大

【群山】 한남리원지방에는련일계속되는 장마로 청명한날을 볼수업슴으로 지금니어 가는보리에타격이 적지안흘뿐 아니라 다른곡식까지도 발육이 조치못하여일반 농가에서는 근심이적지아니하며 더욱이어업자 들은 지금정어리의 어획긔로서 벌서 동해연안 어촌으로서는 적지안케호성적을 내여상당한 어획고를보히리라고 긔대가 적지아니하엿든바 해상에농무로 인하야 출어가불자유하야 적지안흔 타격을바들뿐아니라온유비(鰮油粕)를말날수업스며버레가나고 비(肥)제조공장 에서는『까쓰』(油粕)를말날수업스며버레가나고 말니는데쓰는모든거구가썩는등 피해가 적지안타하며 이러는중에 성어긔(盛漁期)가 넘어감으로 제조업자들은 근심중이라고한다

全厚長少蹴大會

來八日에開戰

【七坪】 후창군칠평시(厚昌郡七坪市)에서는 재작년에개최하엿든제삼회 전후장(全厚長)소년축구대회를 칠평청년회와 조선일보 분국후원으로 팔일에칠평 공보교 광장에서개최한다는데 규정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年齡十八歲以上

二、身長五尺四寸以上

三、參加金二圓

四、申請期日 七月七日下午四時까지

五、申請處所 朝鮮日報社七坪分局

馬龍簡易校開校

【靑丹】 조선적시설인간이 공립보통학교는해주군에도이미이개소의설립이결정되바그중일개소는동군추화면마룡리(秋花面馬龍里)에 설치케되여 당지인사는얼마전부터 긔성회를 조직하야모든준비에 로력하든중 최근준비의완성됨을 떨아지난이일 오후한시부터 동교립시강당에서 개교식을거행하얏다한다

水組事務室에서 大亂鬪劇의一幕

陳情간面書記와水組技師間에 치고、물고、차고

【舒川】 충남서천수리조합에서는지난륙월이십팔일에서천면화성리(花城里)에 살며 현서천면에근무하는 신태식(申泰植)(三十)과조합직등기사(佐藤技師)(三十)와 싸옴이이러나서 주판으로치고밧고 다리를감고 옷을찌저가며무려 뜻는등 그야말로글자그대로 활극을연출하여 일시는조합사무실에는 유혈이 랑자한수라장으로 화하엿섯다는데 그내용은 조합에서배수언쟁이가 절정은그와가리 활상신씨의논까지 연장을하여 노앗던바금번비에 일천사백평이나 되는논이 삼분의일이나 피해를입게되엿승으로 조합에와서 좌우등기사를 보고도면에도 업는수로를엇지만드러 가지고이와가튼피해를 입히니무슨 협의가잇느냐고설계부정(設計不正)을맘하며피해의 손해를무러 달라고 언쟁타가 절정을그와가리 활상사가이러나게 되엿다는데 한편은수리조합 기사요한편은 면사무소서긔라는 공직자들로서 이와가튼비신사적행동에 대하야일반은비란이자자하다한다

加害者佐藤技師談

금번일에대하야는 그배수로는도면에는업스나 전부터잇든 인의소유한물인고로 본조합에서매입하여 금년에 연장한것이고 도내가주판으로 선씨를처서

被害者 申泰植談

당신이 좌등기사를 주판으로 따렷다고 한다지요 못는말이 엠처만의말슴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요 피해입고 손해보조하여달라고 진정간내가 엇지남의주판을들고 먼저 때릴리가잇겟습니까 주판을드려서 좌등기사가처서 내머리와 면상에는세곳이나 상처가나고 그주판은산산부서지고 내옷은 피투성이가되얏섯스며 잠마슬때 그광경을생각할사록분합니다 송산리사(松山理事)는다리를또고고그외몃직원은내몸을꽉붓드러용신할수업섯고좌등기사는내팔을못들고치는데 할수업시 좌등씨팔을무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당방위지요 도그수로에대하야는 땅을샀거나 엇쨋거나 도면에도업는동을만드러서 내논에 피해를입히엿스니 손해를 안주려면 소송까지도 하겟습니다 잠글합니다 운운

松山理事談

금번사건은 내가 목격하얏습니다 그날은총독부에서 검열올와서엇섯고 장날이고해서 퍽분주할때입니다 아마도 신태식씨가 자긔논에 피해를당하고서 흥분이되여 정신이상이 되엿섯는솔오분간이면 될것을 처음부터쌈을시작하야 신씨가 주판으로치라고하니까 좌등씨는 물론정당방위상 그주판을빼아슬것은 정여 그때아슨주판으로 도로친것은 인간상사라고생각합니다 또그일을당코 흥분니되측이며 또그일을당코 홍분니되수로에대하야는 전부터 잇던것을 금번맛즉하게곳치엿스니 물힘이빨더서 피해를당한 모양입니다 하여간우리조합원의피해가 업게되기를 바라는것이니까 그후즉시 실지조사를하고 방금그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장방이 다관직이며 또온순한사람인데 얼마큼 흥분으로 그러케되엿스니 곳원만히 타협하려고합니다 운운

白晝에火災

【大邱】 작이일오후여섯시경대구동천대권정소림권당포(小林典當舖)에서 발화하야그집한채를전소하고동여섯시사십분에진화하얏스며손해는약구천원가량인데원인은실화인듯하다한다

榮山、夢灘津間 自働車開通

【榮山浦】 라주군내굴지의산업도본인 영산몽탄(榮山夢灘)

椒島椒山學校와 崔氏夫婦의熱誠

物質과精神을共히犧牲

【豊川】 황해도풍천초도(椒島)는호수사백오십여호나 되는 『섬』으로서 교육긔관이 잇다하여도내용이 빈약하여 초등교육이철저치못하고로 이를 도민전체로서 항상유감으로 녀이여왓스며대책을 강구하여오든바 풍천에서도 일즉이 교육사업에에쓰든 청년최인주(崔仁柱)씨가 초도에가서 긔설긔관인 초산학교(椒山學校)의내용을충실히하고저물질과 정신(精神)으로만흔힘을드리여 교세를 확장하는 일방최씨 스사로 교편을들어실제로문맹퇴치 운동에 진력한다하며더욱어 최씨혼자보다 최씨의부인김신보(金信寶)녀사는도내유년을모아유치원을설립하고 생석교육사업에는종송치안는자를가르키는중이라는바두분의희년사단독히 수십명의 어린아이가업스며 무보수로 로력하는그정신에는 감복치안흘수 업다는바근대에 다시금 차저볼수업는아름다운 운동이라고한다

梨專巡廻樂團 鐵原에서盛況

【鐵原】 긔보=리화전문학교 북선순회음악단이재일착으로지난이일 오후팔시부터 철원읍내 철원극장에서 당지긔독교조선감원청년회와 본보철원지국율비롯하야 매신、동아등각지국후원으로열리엿든 음악대회는 실로근년에처음보는한 모임으로 예상이상의 성적을거두엇다 첫순서에 러플니크렵의 대합창을 비롯하야 한보패、박최란등의 독창에는 청중은도취하야 장내는 극히 긴장하얏다 니어서 리복순、림금복양등의 이부합창은 만장청중을 긴장시켯고 한보패、리선희、구순복、리철경、민원등의 림금복양등의 사부합창에는 만장의평은 완연히 음악예술의 묘경(妙境)에들어가 희장어떠나갈듯이 거듭하는 박수에 재청삼청으로 끗까지 원만히서황을 일우고동십시반에필하얏다 (사진 (상)러플니크렵의합창광경)

木浦少年男女 懸賞童話大會

【木浦】 목포 긔독교청년회 음악부 주최와 본보목포지국 후원으로개최된소년소녀현상동요대회는지난륙일삼십일오후팔시에양동긔라긔념각(陽洞記念閣)에서김치묵(金致默)씨사회로개최되여수백명의청중으로대성황을일우엇섯는대입상된이는다음과갓다한다(사진(하)목포소년남녀동요대회의입상편)

一等 竹橋里 鄭藝順　二等 永興學校 吳正剛　三等 貞明女校 金再參

三等 第一普校 白根石

公設市場主任이 七十老婆를毆打

構外에서高級魚를못팔게해 卅同業者府廳에殺到

【釜山】 부산부내수정공설시장(水晶町公設市場)의생고기장사부녀 삼십명은 삼일정오에 시장경영자 부산부(釜山府)에 몰려와서 부당국을 방문하고삼산(杉山)리사관을맛나질책한바가잇섯다는데 그내용은 지난이일저녁때에 동공설시장 사무소후암(黑岩)주임이공설구외(構外)에서 고급생선을 못판다는리유로 생선을빼아서 가라고하는것을 못뺏게하려다 동수정정이십이번지 생선장사장봉규(張奉奎)의모친되는김성녀(金姓女)(六三)란늙은이를구라하고수정정에서는 저런고기와 썩는것을잘먹으니고급품과생선을구외에서는팔지말나는법규에업는말을한부로하며 심지어 조선사람생활창을 모욕하는언사까지 하게되여 삼십여명의 생선 장사들은일제히파업을 하는동시에 법규에업는처지와 구내(構內)에 잇는햇생선장사의 명을 들여권한애버서진 간섭을한다하야 혹암주임을 배척하는 일방가른장사를 제한하는 리유를 당국자에게 판매품을 제한하는리유 를당국자에게 질책하게 되엿다한다

장사를못하야 生活에大威脅

料金과設備費問題로

삼산리사관과 장 사업주임은 이에대하야 말하기를 공설시장구내 구외의구별이 잇는이상 구내판매품의 제한을한다 그것은구외업자의 수입과권을도모하는동시에 시장수업을 고려함에잇고 구외 생선장사에게 고급품을 못팔게하는것이다

【釜山】 혹암시장주임에게구타를당한 김씨의아들되는 장봉규씨는 말하기를 넘어나분하긴하지만 현재이십여종의 생선을제한하야 구외에서 못팔게한다면 한동의고기장사로 일가족이살어나가는 가난한 살님사리에라져이만한지라 하로속히 해결을하여야되겟고 고급품을 판다는 구내에들어갈 생각이야잇지만 장소세가빗쌀뿐아니라 구내에대한 설비에도 돈이 들것이니 일이원의자본으로 도저히 대상인과가티 비용을 쓸힘이업스니 냉대를시다하며 구내에와서 고급생선을팔라는말은 결국 구외에서는못팔게한다면 장사를 그만두라고하니 넘어나 당국자로서무성의한 불친절한것이라하야 동업자삼십여명의 압박해 생선장사는올분에차저서장시도못하고챙겨두어하야 엇지할방도를 못차리고 잇다고한다

구내장사의 책동에 사무주임이 동정하는것이넘어아니할간섭을 하며사람을구타하게되기까지에 는 구내장사와 여러가지로 조치못한일이잇섯다하야그후만을 정리와 부리사자의 임정처치를 바라며 조선인 회의원가운데에 서는이사실을 들어 부청울규탄하려는데 조선사람의생활상을 모욕하는동시에 소자본장사군을 위협하는거동 이라하야 압호로 그해결책이 가장주목되다고한다

구내에와서 고급품이면 구내에와 서 파러달라고 말하엿스나변해 들어주지아니하니 시장 사무처리상 그상품을 사무소로갓다가 보관하고잇는것에지나지못하다 는 모호한리유를말하엿다 시장경영상 법규는업지만 십정에빗최여 구내구외의평균을 잡기위하야 다소무리한점도업지 안하며 고급품을팔려면 구내로들어가주기를 바란다는 권고도잇섯스나 결국피차간장구를 거듭하야 충분히생각하야본후 적당히처리하기로 하엿는데 후암주임이장사군을구타까지하엿다함에는심히 유감이란는 뜻을 표하고더욱상세한사정을조사하야 선처하겟다고하엿다

이사실은 지금새삼스러히 일어난일이아니라벌서 부터 구외생선장사가 구내장사보담 판매에나 수입에나나흔점이 만어

本社支局主催 衛生講演盛況

지난六月卅日에

【橫城】 본보횡성지국주최의위생대강연회는 지난 륙월삼십일밤구시부터 신상순(申相淳)씨 사회아래 연사 최응순(崔應順)선생의 천재적열변에 팔백여군중은 긴장리에서 동십일시경에종막하얏다

寡婦自殺

【鎭南浦?】 룡강군 목신리리도선(???)(??)이란과부는지난이십팔일오후 네시경에 집안사람들이 업는틈을 타서 다량의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이웃사람들이 발견하고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드듸어 동시에시경에죽어버렷다는바 그원인은 금춘에 외아들되는 김명선(金命先)이 오래人동안 병으로 신음하다가 그만이세상을 떠난것을 늘슬퍼하든끄테 생활난을 겸하야궁극도 에비관한끄테 그와가티 음독자살을도모한것이라한다

禮山郡下에 麥作收穫不能

一部水害도難免

【禮山】 충남례산군하에는지난이십륙일부터 련일비가 내리기시작하야 일반농가의 이양에는 충분하나계속하야 비가개이지안함으로 밧해잇는 보리를수확치못하야 그냥썩는 형편임으로 농가에서는 크게근심중이라한다

保寧에도

【保寧】 충남보령지방에는 련일나리는 장마비가월사이 업시만이나려서 지난이십구일에는 냇물이 만히부러서각지와와 교통이 두절되엿스며밧해잇는 보리를 거둘틈이업서서 작구썩으며 싹이나는형편임으로 농민들은 대불안중에 잇다고한다

地方人事

▲朴仁洙氏(群山醫院長)谷山分院醫員人事次木浦群仙支局來訪

▲申榮權氏(升座面長)新任人事次去一日本報安州支局來訪

▲鄭志遠氏(監理教新陽里教會主教牧師)新任人事次三日本社平壤支局來訪

▲張義蓮氏(大同고무工業所支配人)同上

▲金義歡氏(同高普教員?)同上

脚氣의新學說

綜合療法의推奬

心臟과胃腸을强케하고、浮腫、麻痺를除去하며、脚氣를輕快식히는新療法

어로부터 初秋까지 脚氣에 罹患하는분이 每年激増하는데 그 原因은무엇인가── 以前은 單只 이가 傳染病이나 或은무슨 中毒으로 일어나는것이라고 考生覺하고

季節과의 關係等은

充分히 說明되여잇지 안엇스나 最近비타민硏究가 發達됨을따라서 原因도엿던 程度까지 잘알고、初夏로부터 初秋에 만히 이 理由도 說明할수 잇게되엿습니다。

最初는 白米病│即 비타민、쥐등을 白米만으로 飼育한즉 비타민B 缺乏으로 人間의 病과 꼭 가튼症狀을 일으키고 이에비타민B가 남어잇는 玄米나、米糠等을 주즉 恢復된다는 事實이 觀察되얏습니다。

그 結果 脚氣는 白米病과 大體로 가튼것으로 亦是비타민B의 缺乏이 原因이란것을 알게되고 또 季節과의 關係는 初夏로부터 初秋에까지

溫度나 濕度가 놉흔

것이 비타민B의 缺乏을 一層促進하는 理由가 잇음을 알게되얏읍니다 東京市衛生試驗所의 醫學博士 土屋大雄左와 如한 報告(東京藥業ム(?) 第三十四號所載)를 하고잇소

高溫에는 實驗上 多如三週間에 비타민B缺乏症狀을 일으든 비둙아도 夏期에는 二週間에 同症狀이 生起요 또 濕度에 對하야는 乾地에 된 野菜와 濕地에 된 野菜를보면 濕地의 野菜가 비타민B의 含有量이 놉널만큼 적소。

夏期에 脚氣가 만흔것은 高溫과 濕氣가 直接 人體에 作用함과 同時에 其日常食이 濕氣와 만흔 氣節에 生産되엇것에 큰 影響

이 잇소。

이런 自然의 影響이 잇은우에 이 季節에는 一般으로 消化器가 衰弱하야 榮養이 減退하고 비타민B의 保有量이 적음으로 一方 消費量은 高溫 其他로 因하야 新陳代謝가 昂進하야서 體內의 비타민B를 一層 缺乏하게 함으로

浮腫이나 動悸 麻痺

等의 症狀을 가진 脚氣가 만흔 사람을 傷害케하게되오。그럼으로 脚氣라하면 비타민B를 補給하는 療法이 一般으로 行하여 진것이나 여기에 한 問題는 脚氣 걸닌 사람이 비타민B만을 補給하면 보다 도 근것이 腸胃에 負擔이나 是非해줄 理論的인 有效한 成分도 併用하는 것이 잘 必要하다고 하는것이요 그 理由는 아직 硏究의 餘地가 잇다고 하나、如何튼 脚氣는 비타민B의 缺乏이 主因이나 또 다른 原因이 이 因子가 附加되는 것이오。

그런 故로 近來, 脚氣의 豫防이나 治療에 비타민B 以外에도 各種의 要素를 含有하얏소、『錠劑 わかもと』의 利用이 推奬되여 별서 效果가 認定되여 잇스나 그도 그럴것으로 이 藥은 비타민B가 生物中 가장 豊富히 含有한 사가

消化不良은全身病

原因과 症狀과 家庭療法

갓난애의기

統計의 所示에 依하면 我國의 어린애는 百人中에 十三人中이 一、二歲까지안에 死亡하오。그리하야 그 死亡率의 過半數를 하고잇는것이

泄瀉

가 主病이 되는 化不良인것을 보드라도 이 病이 如何히 만흔、乳幼兒를 威脅하고 잇는가를 알수 잇소。

이는 乳幼兒의 消化不良이어른의 消化器病에 比하야 症狀이 急激한우에 만이는 胃나 腸의 一局部에만 끈치지 안코、몸全體의 榮養과 新陳代謝를 障害하는 危險한 全身病인 關係요。

大體 榮養學上의 胃腸은、집에 比하면 부엌과 가튼 것으로 어린애의 消化不良은 一般으로

玄關에 오래 머물음으로 治療도 쁨으나 抵抗力이 약한 乳幼兒로는 쑥쑥 깁피 侵入하여 버리오。原因은 主로 젖을 過飮하고、牛乳、밀크의 물타는 法이 잘못되여 砂糖이나 크리ー므 等의 分量이 不適當한데서 되는 일이 最多하고 幼兒는 未熟한 果實、腐敗에 갓가운 食物、또는

차게

잔대서 만이 일어나오。

泄瀉라하드라도 물갓흔 것은 重한 容態는 泄瀉이나 때로는 嘔吐、發熱을 겸한것도 잇소。

比較的 적고、만히는 不消化한 망울망울 한 것으로、粘液이 나 便粒이 석이여、灰白色 또는 暗綠色을 띄고 잇스나 危險한것은 便回數가 急增하야 高熱이 添加하는 境過로 잘못하면 肝臟이나 腦까지 犯하야、一夜가 못되야 團圈을 防하게되오。그러고 이 危險은 大體로 母乳兒보다 牛乳나 밀크로 길느는애에 만소。

그럼으로 母親이나、갓난애에 주는 젖分量과 質에 잘 注意하야、離乳後의 乳兒에는

食事

注意는 勿論、자게 자지 안토록 注意하지 안흐면 안되오。 갓난애가 消化不良에 빠질 時는 泄瀉한다고、설사제를 먹이는것은 危險함으로、그대로 온 終日 斷食히는 것이 조코、목마르면 때때로 茶水를 주는것이 조치오。

그리하야 이 번에 一層慎重한 態度로、乳兒면 젖을、幼兒면 미음 粥等食事에 옴겨가는 것이나、그 간 갓난애에의 服用시키는 것이、衰弱하야 減退된 몸의 消化機能을 도 바로 하고 排便을 整齊하며、斷食中에 榮養을 補給하야、

개하는 조흔 藥이 잇소。 그는 榮養と育兒の會의 『錠劑 わかもと』로 그 成分은 젖과 食物의 消化를 잘하게하고、胃腸細胞에 作用하야 機能을 圓滑케하고、全身의 新陳代謝를

活潑

케하는 作用 잇는 酵素나、小兒의 發育에 업서서는 안되는 비타민、누구 레인、蛋白質을 비롯하야、多種 多樣의 榮養素가、吸收、容易 한 形態로 包含되여 잇습으로、임의 결인 消化不良을 恢復할 것은 勿論 平常時부터 胃腸이 弱하고、發育이 不好한 乳幼兒를、그 不健康에 서 救하기 爲하야도 대단 適切한 藥 이요。

『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 大門 附近 榮養と育兒の會 (振替 東京一七〇〇番) 으로 廿五日分 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 五圓、新藥 錠劑 二百錠 一日分 三錢으로

全國 藥店에 도 잇으나 品切時는 送料 實元(?)、藥價만 送附하면 送達 는 發賣元 責務으로 急送함。

腹痛泄瀉食慾不振의 胃腸加答兒에

(前略)나는 去年十月感氣에 걸여 四十度까지 發熱하야 醫師의 診斷을 밧은 結果 左肋膜炎이라하엿소

多幸히 必死的인 어머니 看護로 그러케 病은 重하지 안코 快하게 되얏스나 그後 胃腸이 납부고 氣味 납흔 腹鳴、腹痛

◇…泄瀉에 고생하고 食慾이 업고 밥에는 盜汗、寢汗으로 安眠도 못하고 衰弱이 激甚함、巾略)

엇던분 의 勸으로 わかもと를 服用하고 여러 날 보고 매 오 좌하것습니다(?)…

◇…血色이 조와젓다고 말하며 氣分도 爽快하게 되얏습니다 그리하야 가속 服用한 결과 氣分 납 분 증세가 업서졋고、腹痛、泄瀉도 極히 輕快하야저서 氣分 조케 되엿습니다。(後略)

(福島) 大山すみ

(錠劑わかもと를 계속하는동 안 업음의)

(中略) 김버서 每日 빠지안코계 속해 먹엇습니다。

服用中에 漸漸 배속이 조코 자 조 生起는 腹痛과 설사가 나어 갓 숩니다 (?)

無代贈呈

興味와實益을兼한月刊雜誌

わかもと 本舖의 月刊誌 『榮養と育兒』 는 꼭 有用한 醫學記事를 滿載、育兒의 知識、有益한 品切時는 無代贈呈한 것으로 全國藥店에서 無代贈呈의 通知를 보내시면 本舖에 請求하시도록 藥店에 照會하시요

衛生家의 胃腸의 衛生

朝鮮映畵大會 (大田)

▲時日 七月六、七兩日下午八時半

▲場所 大田 ■心■

▲映畵 ...

讀者優待 ◇讀者割引 階上三十錢을二十錢으로 階下二十錢을十錢으로

◇主催 白影映畵社

◇後援 朝鮮日報大田支局

朝滿男女雄辯大會 (安東縣)

△時日及場所 八月一、二、三日午後七時 ...

△演士申請期日 七月廿五日까지...

△申請場所 安東縣市場通 安東朝鮮人青年會

△賞品 一等 ...

◇主催 ...安東朝鮮人青年會 ...

◇後援 ...

朝鮮農地令槪論
經濟的模樣과法律的解釋 (三)
學士 李在元

三、小作權의效力

一、總論

從來의小作制度는 地主와土地所有에對한 絕對權만이 民法에依하야 確認되엿슬뿐이요이와相對關係下에잇는小作人의土地利用乃至耕作에對한權利는조금도認定되야잇지못하얏다。따라서小作人은法制上조금도土地에安定할수가업섯다。契約의如何를不拘하고—아니本意에融合한契約을할實力이업다—地主의形便上必要가잇다기만하면、언제든지土地의返還에應하지안코면안되게되얏다。

小作權의確保는 農家經濟의基本이오、農民의生命이다。아모리熱心과努力을다하야 農家更生을圖하더래도 그計劃의基本이되는 耕地의 耕作이無保障하면小作農의地位는安定을어들수업다。大體小作權의法律的保障이 薄弱한것은小作人의人格이不完全함을意味한다 完全한人格者는鞏固한地盤우에自力으로써確立하지안코면안된다 남의好意만을前提하고生存하지안코면안되는者는完全한人格者다고할수업다 地上에는恒히溫情主義者乃至隷主와勞働者나 地主와小作人이法律로써 서로對持함은조치안타고한다 그러나 法律은決코 吾人의日常生活의規律은아니다 不賣買가出現한때에 이를剋服하기爲하야 裁判所에서하는審判의尺度임에不過하는것이다 地主와小作人相互의日常關係는法律의바게서 相互間에締結되며 廣立하는것이다 平素에 오즉 地主의好意만에 依賴하고 아모特히保護된 法律的地步를가지지못한小作人은 言語도다만 地主의好意를 일치안키를 힘싸아할러이니 거긔自然히服從과屈從이生起는것은當然하다 남을法律的으로 劣勢의地位에두어 事實上의威力을 自己手中에保持하고서多少의溫情을나리고저함은 決코濟世的이아니다

이번農地令이小作權의 物權化를 꾀하고 그相續을認定한것은 正當한바이다 한데吾人이遺憾으로생각하는바는 小作權의 自由讓渡를認定치안흔것이다。小作權의 財産的價値를 法律上確認치안하서는아직完全히保障된 小作權이라할수업다。大抵 經濟上法則으로보아 權利의目的物에限이잇되 그것의需要가增加하면 그만치 그權利는 交換財로서의 價値가增大하는것이니 數量에限이잇는典型小作人權利가 高價로賣買되는것도 即이때문이다。經濟學上小作料와 殿正한意味의資本主義的 地代가性質이 다른點으로보나 土地代價의自然膨脹的 利得을 地主가 獨占으로하는點으로보나小作權의 賣買를 禁할理由는 업는것이다。勿論 小作人의如何가地主에게 重要한利害關係가잇는것은 事實이다。即耕作의善否는곳 地主의 利害에 影響이잇는것이니까。그러나耕作不良의 利害關係는 오히려 小作人自身에 더욱重大한事項이아니겟느냐。永小作權에對하야認定한 任意讓渡의權能을普通小作權에 對하야서는 認定하지못할理由가 어듸잇스랴。社會一般의 經濟事情으로因하야自然히 産出된事實上의 交換財로서의 小作權의 價値가地主의 任意에 依하야 根本的으로否認되는 法制가 엇지公正라하랴。이제 立法上參考로 上述한小作法幹事案 第六條의規定을 들어보자。

「小作人은 擅히地主의承諾을得함이업시 其小作權을讓渡함을得함 但이와다른慣習이잇는境遇에는 小作人은그慣習에 從함을得함」

承諾者不要하는 慣習이잇는 境遇에는自由로讓渡할수잇슬뿐 아니라地主는 正當한理由가잇는境遇를除한外에는 前項의承諾을拒絕함을不得함」이라規定하야 事實上에잇서自由讓渡를 認定함과다름이업게하고「小作人이 第一項의承諾을求한境遇에 地主가一週間內에確答을하지안는때는 其承諾이잇는것으로看做함」이라하고「小作權의讓渡를 禁止又는制限하는契約은 此를無効로함」이라하야 所謂「契約自由」의惡用을 防止하고「小作權讓渡에 對하야紛爭이잇는境遇에는 地主又는小作人은 其裁定을小作審判所에申請함을得함」하게하엿다 妥當한立法上考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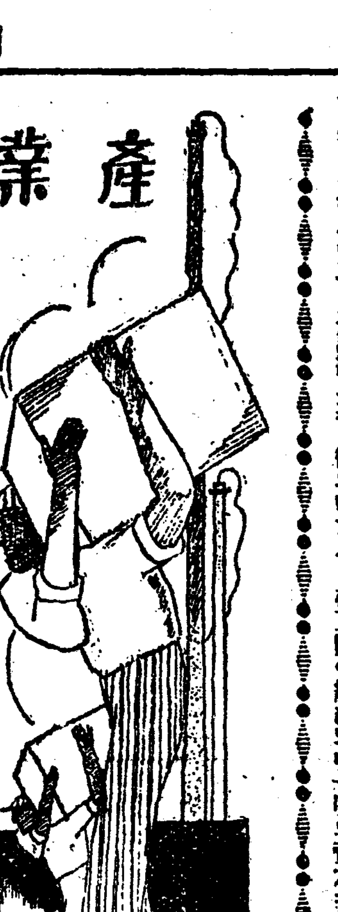
二、對世的效力

從來의小作權은永小作權을除하고는 民法上賃借權即債權이므로 小作人은小作地上에直接的인 對物的權利를가지지못하고 다만地主에게 向하야土地의使用을 許與하기를 請求하는對人的權利를가짐에 不過하얏다 따라서 地主가그土地를他에讓渡하면 小作人은新地主에게對抗할수업서 新地主가好意로小作의繼續을 承認해주면조커니와 만일그土地의返還을請求하면 어느때라도 이에應치안흘수업는것이엇다。小作人에게 唯一의 生活資料인 小作地가 어느때返還되어야할지모르고 法律的手段을 가지지못하는것은 小作人의 生活이 安定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不安이잇고는 小作地에 永久的改良을加하야 充分한耕作을行할수가업스니 農事改良上으로보와도 極히憂慮할現象이아닐수업다。그럼으로小作人의權利를 物權化하야 이것을確立하는것은 唯獨小作人을保護하기爲하야서만아니라 公益上으로도 亦極히必要한바이다 民法의 規定으로도 土地의賃貸借는登記만하면 其後그土地에對하야 物權을取得한者에對하야서도 그効力이生하기는하나(民法第六〇五條)登記에는地主의 同意가必要한데小作權의登記에 同意를 조하하지안는地主가 이에同意를할리가업다 그리고 永小作權이잇서그權利가 强固한바잇지마는 더구나이것은 設定의可望도업는 이제와歷史的遺物에不過하다。大體人間生活에必要不可缺의重要한物資에對한他人의 支配關係는、物權的으로 保障되지안코는 안된다。

農地令 第十二條에「小作地의賃貸借는其登記가업서도 小作地의引渡가잇는때는 爾後其小作地에對하야物權을取得한者에對하야도 其効力을生함」이라고規定한것은 가장適切한바로 이規定의解釋上主要點은「引渡」에 잇는바 어느程度의事實이잇스면 引渡가되얏다고하겟느냐 引渡라함은 事實的 占有의 移轉을意味하야 各其具體的狀況에 依하야決定될것이나 施肥又는耕作의着手等그占有形態의明白한境遇뿐아니라 普通一般社會觀念上으로보아事實的支配에歸屬한것으로 볼수잇는 境遇에는占有가移轉되엿다고할것이다。假令小作契約이完成되고地主나 그代理人으로부터土地現實의使用이 許諾되야小作人이實地에 着手하얏스면 現地에對한占有가主會하야 引渡의手續을하지안헛드래도이에先存한正當한 占有者의承諾이 占有를保有하는바가 잇지안흔이상에는 事實上 土地는引渡되얏다고하겟다。그리고 引渡의效果에對해서는 法文에도効力을生한다이라하고「對抗한다」는 말을 쓰지안헛스니 引渡後에는賃借人은다만賃借權으로써 所有權取得者에 對抗할수만잇슬뿐아니라 新所有者는賃借人에對하야 賃貸人인地位를取得하고그權利義務를 承繼하는것이다 그러타고前賃貸人은物權移轉의 境遇에 能히그義務를免한것은아니다 왜그러냐하면그義務는土地의所有權으로부터生한것이아니오 賃貸借契約으로부터生한것이기때문이다。그리고前賃貸人의債權特히 小作料支拂請求權은 當然히이에隨伴하지는안는다。

이러케小作權이 物權化하기때문에 引渡된小作地가 賣買되는 때에 買主는賃貸人의 地位를 取得하게되는것이엇다 農地令第十二條第二項에特別規定을設하얏다。即買主가賃貸借가附着되지안흔土地로생각하고 買受한境遇에는 買主는代金支拂을拒絕할수잇고(民法第五六三條) 賃貸借가附着되야잇기때문에 契約을한目的을達하기不能한境遇에限하야 買主는 契約을解除할수도잇고 其他의境遇에는損害賠償의請求만을할수도잇다 勿論賣買當時에 買主가이미賃貸借의存在를알고잇는境遇에는 이러한權限이업다。그럼으로 이規定은自作地인지 小作地인지 不明한것이 賣買된境遇에나 適用될것이오 大地主의所有地賣買에는 賃貸地아닌것이업스니 元來問題될것도업다 그리고 以上의權利는買主가事實을知得한때로부터 一年內에行하여야되는것이다(民法第五六六條)(繼續)

産業



苹果도豊作受難
昨年보다三割增收나移出難으로 果樹園經營者苦痛

昨年中 苹果生産에잇서 日本內地는凶作이엇스나 朝鮮은一千二十七萬餘貫의多量에達하는豐年이엇슴으로 移出이 激增하야 昨年輸移出量이一千九百萬斤(그中大部分이移出)에達하얏다 그런대今年에日本內地가豐作이며 또朝鮮은그동안黃海道에暴風이잇섯스나何等被害가업고昨年보다二三割增收의大豐作이豫想되고잇다 이와가티日本內地의 苹果豐作으로 朝鮮苹果는 昨年과가티 移出되기가 어려울形勢에잇서 朝鮮內果樹園經營者는 벌서부터 豐作의苹果를 어떠케모두處分할가하는對策에 腐心하는터이라고한다

統制考慮
價格低落難免
◇千田農林局技師談

日本內地와 朝鮮이모두 苹果豐作임으로 朝鮮苹果移出에잇서 支障이생길가하는 念慮를 갓는것도 無理가아니다 그러나 全然移出이못되지는안흘것이며 다만 苹果의갑이떠러질念慮가 잇는것이다 이에對한 統制를 要望하는사람이잇는데 勿論그必要를 認하지만 準備調査의關係上아즉무엇이라고말할수업다

滿洲輸出促進講究
滿洲도歡迎、總督府도調査

朝鮮苹果를 滿洲國에서는輸入하랴고 最近에滿洲國官吏平井某가平壤에와서 苹果의滿洲輸出會社를組織함에對하야 各方面과相議한바가 잇다고하며 또總督府에서도 朝鮮苹果滿洲輸出에對하야 방이調査研究를하는터이라고한다

醴泉酒造再組織

【醴泉】醴泉郡內에잇는酒造場으로말하면 醴泉酒造株式會社外二十九個所인대 이二十九個所酒造業者들은 한참당시에는 彼此가競爭的으로술을만들고 팔고하기때문에모든것이不統一뿐더러 當局의取締가困難하며따라서 酒造業者間에는 자미스럽지못한일이 종종생기는 傾向이잇슴으로이것을徹底히 排除하는同時에압흐로同業者인만큼첫재는 酒類의品質을 向上식히고 從業者서로利害를圖하자는趣旨로 醴泉酒造組合을組織하야가지고 以來모든것을 統制的으로 돌보아나오든바 今番本郡財務係가尙州稅務署로 移屬이되는바람에 本組合員들은本組合의存在가必要업다는것으로 지난四月에一旦解體를식히고 만것을다시지난十九日에 酒造業者들이모여서 再組織을하엿다는대本組合의事業과重要役員은 아래와갓다한다

▲事業要領
一、酒類及麯子의品質改良
一、酒類及麯子原料品器具等의共同購入
一、附酒品評會講習會等開催又는先進地視察
一、酒類及麯子價格協定
一、非免許者酒類及麯子密造防止
一、法令又는監督官廳의指揮命令周知並此의遵守
一、前記各號外必要事項

▲就任役員
組合長 張源生 副組合長 尹政熙 監事 鄭秉郁 李明植 評議員 朴贊文外四人

마닐라麻(마오란)
朝鮮에서는栽培禁物
販路가全然업는물건

마오란(마닐라麻)을 朝鮮에서栽培하야도 有利하다고생각하고그栽培를 奬勵하는이가相當히잇는모양이다 그러나이것은生産品을 全然販賣할수업스며또(로프)의原料로도 使用할希望이 全然업는것이다 農林局에서는 이것을 栽培치말도록 警告한바잇스나 아직鮮內에서는一般이 栽培하기쉽다는이를잘못알고 이點을充分히알어두지안는 모양이니 그럼으로 이러한宣傳에속지말고 栽培치안토록함이조흘것이다

奉天省下棉作
暴雨로全滅狀態
當局에救濟嘆願續出

【四平街】日滿棉花自給自足의目的과 農村救濟策으로棉花協會와奉天省當局에서 만흔힘을들이여 省下各地方農村에奬勵하여조흔 成績으로發育하든것이 連日의暴雨로全滅狀態에 일으러 昨年成績이조려운狀態에 빠젓다한다. 農民들은唯一한 更生策으로 만흔期待를가지고 잇든바 意外에도이모양이되여 救濟方法을當局에歎願하는이가 續出함으로棉花協會에서는 商務會와協力하야各地方의 實狀을調査하야 適當한救濟策을 請求하기로되엿다한다 이暴雨로高粱과 大豆는被害가업고잘發育되는現狀이라고한다

洪川郡米收穫
昨年度五萬八千餘石

【洪川】江原道洪川郡의昨年度의統計를보면 全郡米作付反別五三、九五三段에 五八、八三一石이收穫되엿다는데 前年에比하면 近千石이減收되엿다고한다

郵便貯金六月末現在

全朝鮮郵便貯金의 六月末預入人員은 二百九十一萬九百九十八人 其預金額四千四百九十九萬八千三百二十六圓이다 이를前年六月末의現在에比較하면 預入人員에잇서一割三分 預金額에잇서九分(强)을 모다增加하얏다

五月中元山港貿易
比前年同期六萬餘圓增

【元山】五月中元山港의貿易은다음과갓다

輸出	一六、五六二圓
輸入	三四九、三七六
合計	三六五、九四一
移出	三三二、七六三
移入	一、四三七、〇五三
合計	一、七六九、八一六
總計	二、一三五、七五七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다음과갓다

輸出	一、九〇八增
輸入	一一五、〇七五增
移出	二四、四九六增
移入	七六、四四一減
總計	六一、二二二增

增加한者中重要한것은如左하다

一、輸移出

米	五九、三五三圓
大豆	八六、八四〇
乾魚	八、七七九
海蔘	一五、二四一
黑鉛	一六、二八四
金鑛	九四、〇〇〇
合計	三四九、三二五

二、輸移入

粟	八二、二七七圓
小麥粉	二七、〇六九
砂糖	一一、七五九
乾魚	一〇三、一三一
重油	四六、二四三
揮發油	二〇四、二一五
石油	五五、六一六
打棉	二一、二六〇
棉織物	一六一、六九七
絹織物	三四、〇八二
漁網	三九、八七七
고무靴	五、六一五
紙類	一一、九七一
石炭	一六、一五〇
세멘트	九、〇八七
機械類	一六、三六五
本材	四一、二二四
肥料	五七、八六二
合計	一、七八六、四三二圓

京畿道一等
大麥多收穫

【水原】富川郡多朱面消禾里 洪南杓氏는 今年三十歲의靑年으로서 農事改良에 만흔힘을기우려 研究를하는一方實地耕作을하여오든바今年에京畿道第一等의大麥耕作法을에名譽의賞을맛고다시全朝鮮品評會에出品을하러고지난廿二日別記各關係官廳의技手其他洞民一同이出動하야 비여다작을하야算計하엿든바一段步에九石餘가나서全朝鮮一等에入賞이有望하다하야耕作者는 勿論一般面民의將來農事開拓에 大福音이라하야明年부터는 各方面에서만흔奬勵를하리라고한다

立會者
朝鮮農會 水原京畿道農事試驗場 京畿道技手 富川郡技手 多朱面書記 金融組合技手 新聞記者等

長湖院梧倉婦人會

【利川】在來로朝鮮習慣에依하야 女子는家庭에만잇술줄알고 박게서勞働하는것은수치로알고잇던 利川郡淸美面梧倉里에는 昨年三月에閔愛鎬氏의熱誠으로成立된 長湖院梧倉婦人會의 會員은 三十五名이라하며그事業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生活改善
二、消費節約貯蓄
三、農事改良共同耕作
四、副業奬勵
五、耕作地畓四段步 田二段步
六、現在資産 現金百五十圓(共同貯蓄金)大麥四石

農民데이

【抱川】抱川郡蘇屹面에서는 年中行事로 지난十四日午前十時에 밤나무들(栗坪)에서 面長李鍾拜氏 金湖의黃圭淳 校長 有志 振興會長 區長등三十餘名이會合하야 農民데이記念으로모를내고 附近松林속에서 簡單한점심을맛치고散會하엿다한다

寫眞‖上은京畿道一等賞에入選된 洪南杓氏(中央勞働服입은사람)의大麥作付 中은 梧倉婦人會의 共同移秧光景 下는抱川農民데이 記念移秧光景

朝鮮內水稻移秧
八割五分三厘가終了
‖六月三十日現在狀況‖

【四日農林局發表】朝鮮內水稻移秧狀況을調査하면 六月下旬 全朝鮮的으로 相當히潤澤한降雨가잇섯슴으로南朝鮮各道의移秧이進捗하야六月三十日現在의移秧終了面積은百三十七萬三千百七十三町一反步 今年移秧豫想面積의 八割五分三厘에相當하고 前年同期에比하면 相當히進捗인데各道別狀況은 아래와갓다

道名	移秧終了面積(町)	同步合	進步狀況	移秧豫想面積(町)
京畿	[illegible]	[illegible]	良好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城에桑姬象虫蔓延
農會외各郡聯이極力退治

【長城】全南長城郡의 養蠶이라면全朝鮮을通하야 第一位를占領하엿다는데 近日繭價暴落肥料代暴騰으로도 羅津、雄基 熙川等地로 勞働農民의移住가 增多함으로 因하야남어잇는勞働的인賃銀昂騰 蠶種代高價로 養蠶業者의 收支가맛지안하야 破産者가 續出하는데雪上加霜으로 桑姬象虫이라는蠶虫의被害가 不少하다는바 郡農會자各部落의 養蠶家로 組織된各團體는 서로連絡을取하야 同虫驅除에 努力하는中 一羽에 約二厘式으로買收한다는데 今年養蠶은 實로生系價格과아울러 一大問題라하야 價對策에腐心中에 잇다고한다

朝鮮米移出
繼續的激減
粟輸入은續增加

【三日總督府發表】六月中朝鮮米移出은 三十一萬四千二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三十六萬七千百三石의 激減이오 昨年十一月以後의累計는 七百二十六萬三十一石이어서 前年同期에比하야百十六萬五千三百三十四石의增加이엇나 그리고六月中粟輸入狀況은 二萬三千五百三十三石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一萬八千百四十一石의增加이며 昨年十一月以後粟輸入累計는 百四萬二千四百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一萬六千二百五十九石의激增이엇나

▲米輸移出高 (玄米로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六月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合計
六月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合計
六月上旬	[illegible]	—	[illegible]
中旬	[illegible]	—	[illegible]
下旬	[illegible]	—	[illegible]
計	[illegible]	—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五月中正誤

個所	誤	正
米輸出	[illegible]	[illegible]
同移出	[illegible]	[illegible]
同輸入	[illegible]	[illegible]
同移入	[illegible]	[illegible]
粟輸入	[illegible]	[illegible]
同移入	[illegible]	[illegible]

五月中平壤貿易躍進
輸出入五十六萬五千餘圓
前年同期比七萬五千餘圓增

【平壤】平壤稅關支署에서五月中에잇서서 取扱한平壤輸出入總額은 五十六萬五千三百七十五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十七萬六千五百三十四圓의激增을보히고잇는바 內譯은다음과갓다

	今年 數量	今年 價格	昨年 數量	昨年 價格
輸出				
精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味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醬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고무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고무底布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				
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蕎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爆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移出				
帛及同製品		[illegible]		[illegible]
衣類及同附屬品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移入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金巾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晒金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丹斯		[illegible]		[illegible]
太綾巾		[illegible]		[illegible]
綿朱子		[illegible]		[illegible]
交織人絹及同		[illegible]		[illegible]
其他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副業産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七月三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同 赤	同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외 朝鮮産	百個	[illegible]
외 中國	同	[illegible]
수박 臺灣	一貫	[illegible]
同 土産	同	[illegible]
茄子 土産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靑葱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양상치	同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土産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牛蒡	一貫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紅玉	四貫	[illegible]
同 國光	同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夏蜜柑	十貫	[illegible]
早生赤 日本産	三貫五百匁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同 今村秋	同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잣	一斗	[illegible]
실백	同	[illegible]
苦椒 朝鮮	百斤	[illegible]
실고추 朝鮮	同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乾柿	百個	[illegible]
고사리 乾物	一束	[illegible]
大棗 中國産	一斗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銀杏	同	[illegible]
乾蕨根	同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雄	百匁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東白 五百匁以上	百匁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同 雄	同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산고라兎毛 三吋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統毛	同	[illegible]
同 펠트	同	[illegible]
레기스兎皮	一枚	[illegible]
豚 鬃毛	百斤	[illegible]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成鷄用配合餌	八〇斤	[illegible]
育雛用 同	五〇斤	[illegible]
中雛用 同	同	[illegible]
麩	九〇斤	[illegible]
玉蜀黍割(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高粱粒	五斗	[illegible]
同割	同	[illegible]
驅虫用粉	二폰드	[illegible]
魚粉メ粕	八〇斤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螺殼	百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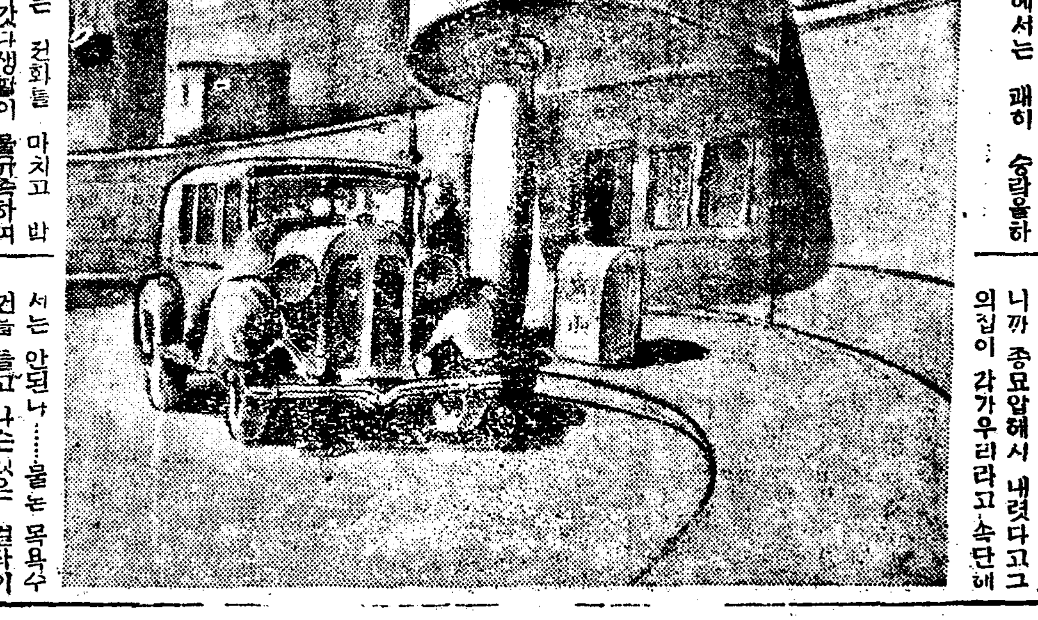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二寸目	百尺	[illegible]
三尺幅 同	同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五分目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上		[illegible]
同 中		[illegible]
同 下		[illegible]
經木眞田	一反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簾草	同	[illegible]
栗虫巢	百斤	[illegible]
椎茸	一貫	[illegible]
切乾大根(서려말린것)	十貫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蜆(小粒)	一升	[illegible]



艶魔 (35)
探偵小說 徐東山 作 金奎澤 畵

역습(逆襲)(五)

영호는 ××일보사에 전화를걸고 사회부장을 불러내엇다 악가부터 여러번이나 걸엇스나 아직 아니들어왓다는것이엿다 이번에는 찻는사람이나왓다 전부터 각가히 아는터이라 약간 인사가 끗난뒤에 영호는 다음과가튼 부탁을하엿다

—사회부기자 가운데 경찰서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출입하는 경찰서에 가거든 오늘 아침에 시내 어느곳에서든지 갑참업시 내버린 인력거하나가 혹시 발견이 되지 하니하엿느냐—

—물론 그것이 신문으로는 사호일단(四號一段)재료박게는 아니되지만 이편으로보면 호외거리보담도 더 긴한것이니 곳좀 알녀주도록하라—

저편에서는 쾌히 승락을하엿다

영호는 전화를 마치고 밧그로 나갓다 생활이 불규측하여지고 음식이 모다 식는데도 밥먹는것도 이저바리고 또뛰여나가는 영호를 식모가 등뒤에서 근심스러히 바라본다(엽대 근심과 질거움은 애인과한가지로 남의것은 서푼갑세 못가지만 내것은 천냥에도 밧꿀수가 업는것이니까)

영호는 팔다리와 전신에 기운이 차림는것 가텃다。어제밤일과 또 오늘아침에 조롱을바더 분하고 압타가옵든 우울한기분은 사라지고마럿다。

운전대에는 상준이가 외투도모자도 저고리도 버슨 악가그대로 기다리고 안저잇다 영호는 그가 몹시 신통스러웟다。

차를 모라가면서 영호는 상준이더러 무럿다。

「아직도 무슨 실수업섯든지 생각이 아니나니?」

그러나 상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모르겟다는듯이 눈으로 대답을한다。

「그러면 위선 그 로인이 인력거를 타지안코 걸어갓다 면너는 어찌할량으로햇니?」

「제가 인력거를 타지요」

상준이는 서슴잔코 대답한다。

영호는 그러라는듯이 고개를 끄덕어린다。

「그러고 그다음……이게 중요한것인데……악가 말이다 그로인의집이 종묘압헤서그러케 각가웟스니말이지 만일한 십오분이고 이십분이고 그보다더 걸어가도록 되엇섯드면 상준이 사실다면?……그러타면 네가목욕수건을풀고 따러가는것이 대번 꼭도가 됫게아니냐?」

상준이는 비로소 알엇다는듯이 고개를 숙인다。

사실 생각하면 아슬아슬한일이다 다행히 그로인의 집이 그러케 각가윗게 망이지 그러찬코 술나끔을 다돌아연 건둥이나 연시동가튼데로 여러골목을 걸어가게 되엇나면 일은 완전히 실패되엇슬것이다。그러나 생각하면 그래도 몹이잇다

「그러치만 종묘압헤서 인력거를 내렷스니까 집이 얼잔흘텐데요……」

「아—니……로인이 뒤를밟피지 아니하라고 그리는것이니까 종묘압헤서 내렷다고 그의집이 각가우리라고 속단에서는 안된다……물논 목욕수건을 들고 나슨것은 걸작이다 나도 천하 내기어려운꾀야……그런데 또 다행히 로인이 집가가운데서 내렷기때문에 네가 성공을 한것이다 알겟니?」

상준이는 고조넉히 고개를숙엿다。

차는 종묘압까지 각가히와서 영호는 차를 까소링 스테손에 맛기고 상준이는 의복맛긴상점에 드러가서 맛겻든것을 차저입고나왓다。

영호는 상준이를 압세우고 목적한 그집압헤 다달넛다。

과연 문패도 번지수 패도 떼여버리고 자국만 남어 뚝보기에 빈집가트나 좀 주의해서보는 사람에게는 번지수 패까지 떼여바린것이 되려 조건이 부텃나는 의심을주게되엿다。

영호는 다어서서 대문을 밀처보앗다。안으로 잠그고 열니지 아니하엿다

영호는 잠간 주저하다가 손가락을 초인종버릇키 대문틈으로 로너허 손쉽게 빗장을 버저당겻다。

영호는 서슴지아니하고 안대문을 거처 마당으로 드러섯다。

인제는 로인과 영호는 한편인셈이엿다。그러니까 영호가 활동하는것을 숨길필요도 업고 되려 로인을 맛나 그와 공동처리하자는것이다